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홈캐시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심리 상담 / 치료
이경민
존스 홉킨스 대학원 석사
571.240.6313
rachellee@sunstonecounselors.com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301호

Wednesday, May 21, 2025 A

한국 대선 재외국민투표 시작

조현동 대사 알렉산드리아 투표소 찾아
유권자들 “나라가 걱정돼 투표하러 왔죠”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제21대 대통령 재외국민 투표 첫 날인 20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재외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조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부인과 함께 애난데일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코리안커뮤니티센터 2층의 투표소를 찾았다.

투표 진행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은 조대사 부부는 신원확인 절차 뒤 투표용지를 받고 각각 기표소에 들어가 선택을 한 후 봉인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다.

이어 조대사는 “투표를 잘 했다”면서 “등록을 마친 유권자 모든 재외동포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주권의 무를 강조했다.

조대사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자리를 떴다.



20일 조현동 주미대사가 부인과 함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이 관할하는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 메릴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주 등에서는 이번 선

거에 약 4326명이 선거 유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는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코리안커뮤니티센터는 오는 25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릴랜드 한인회 사무실에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할 수 있다.

재외선거 투표 첫 날인 오전 9시30분 현재 알렉산드리아 투표소에 35여명이 한표 행사를 했다.

오전 8시30분께 코리안커뮤니티센터를 찾은 비엔나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조순제 씨는 “해외에 나와서 살다보니 애국심이 더 생겼다”며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더 안정되게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한 표를 행사하러 왔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여권, 영주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환 기자

워싱턴지역 주택 연식 고령화

작년 매매된 워싱턴 지역 주택 연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이 최근 발표한 주택 연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워싱턴메트로지역에서 거래된 주택의 중간 연식은 1987년(37년)으로 전국 평균 36년보다 높았다.

이는 지난 2012년 당시 매매주택의 중간연식인 28년보다 무려 9년이 더 늘어난 수치다.

즉, 지난해 주택 구매자들은 12년 전보다 9년 더 낡은 주택을 구매했다는 뜻이다. 연식이 5년 이내 주택의 경우 12.3%에 불과했으나 30년 이상 연식은 59.3%에 달했다.

5년 이내 연식 주택 중간매매가격은 62만5500달러, 30년 이상 연식 주택은 51만5천달러였다.

최근 10년 이상 신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탓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계가 크게 위축된 후 신규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주택 공급량은 예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정체됐기 때문이다.

또한 신축 주택이 꾸준히 가격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노후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전국 기준 작년 30년 이상된 주택의 중간거래 가격은 32만3000달러로, 신축주택의 42만5000달러에 비해 10만 달러(15%)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레드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셰하르 야르 보카리는 “주택 재고가 해마다 더 고령화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오래된 집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고 비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옥채 기자

한인에게 뇌물받은 전 해군대장 유죄 판결

전직 해군 대장이 한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트레버 맥패이든 판사는 19일 해군 대장 출신인 로버트 버크(62세·사진) 전 유럽·아프리카지역 해군 사령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해군 서열 2위였던 버크 전 사령관은 현역 시절 연방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군 중 최고위급 인사가 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버크 전 사령관은 한인 김용철(찰리 김, 51



세)씨와 공동 CEO 메건 메신저 등이 운영하는 한 업체로부터 해군과 파일럿 훈련 프로그램 계약을 유지시키는 댓가로 퇴임 후 연봉 50만달러의 일자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버크 전 사령관은 최대 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지니 페리스 연방검사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의 신뢰를 배신하고 자신의 잇속을 차리면 절대 안된

다”면서 “연방검찰은 뇌물이나 불법 계약 등 부패를 근절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버크 전 사령관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 러시아,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 미 해군 작전을 지휘하고 수천 명의 민간인과 군인을 지휘했다.

김용철씨의 회사는 2018년과 2019년 연속 해군 용역 교육프로그램을 수주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버크 전 사령관과의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와 메신저는 2021년 7월 버크 전 사령관과 워싱턴 DC에서 만났고 버크 전

사령관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단독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른 해군 장교들에게 이 회사가 더 큰 규모의 훈련 프로그램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버크 전 사령관은 법무부 조사에서 본인과 문제가 된 이 계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계약이 성사된 이후 고용을 제안받았다고 허위진술을 했다. 김씨는 글로벌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출신으로 1994년 넥스트점프를 창업했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노파이어(NoFire)’ 정책으로 주목받으면서 존스홉킨스대가 선정한 가장 건강한 3대 회사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김씨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문화 혁신에 대한 영감을 준 사람이 부친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김씨는 유력 노벨상 후보로 꼽혀온 ‘옥수수박사’ 김순권 박사의 장남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메신저는 2024년 5월에 체포돼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공모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021년 만남에는 모두 4명이 참석했는데, 버크 전 사령관과 연인 관계로 알려진 여성은 기소를 면했다.

이 여성은 버크 전 사령관에게 버림받자 국방부 감찰관에게 비리를 고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혼외정사를 처벌하고 있지만, 버크 전 사령관은 별거 중에 있었던 사안이라 면책받았다.

김옥채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가 팔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메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소진 ‘난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사용 확대 노력에도 마일리지 가 거의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사가 경영과 조직을 완전히 통합하기 전 마일리지를 ‘털고’ 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결국 마일리지의 통합 시 합병의 비율이 중요하게 부각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지난 1분기 마일리지 총액은 2조6천21억원으로, 작년 말의 2조5천743억원보다 278억원 증가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1분기 말 마일리지 총액은 9천519억원으로 올해 초의 9천608억원보다 89억원 감소했다. 89억원 감소도 마일리지를 소진하기 위한 아시아나항공의 각고의 노력 끝에 거둔 결과다. 아시아나항공의 작년 한 해 동안의 마일리지 감소폭은 22억5천만원에 그쳤다.

4월에는 LA와 뉴욕 노선에서 국제선 마일리지 항공편을 운영했고, 2·3분기에 마일리지 전용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마일리지를 대폭 소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의 통합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마일리지의 통합 비율이다.

과거 미국 항공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8년 델타항공과 노스웨스트항공의 기업 결합 시 1대1 비율로 마일리지를 통합했다. 또 알래스카항공과 하와이안항공의 통합에서도 마일리지를

1대1 비율로 전환했다.

다만 카드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8~2020년 3년간 신용카드가 사들인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가 1마일당 14.5원, 아시아나는 1마일당 10.8원 수준이다. 이때의 비율이 약 1대 0.7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탑승 마일리지와 신용카드 제휴 마일리지를 구분해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로,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차등 비율로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6월 중순 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양사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한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워싱턴 지역 단신

연방의사당 침입 당시 사망 여성 500만불 배상

지난 2021년 1월6일 연방의회 의사당 침입사건 당시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애슐리 바비트(당시 35세) 유족이 500만 달러 정도의 배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비공개 공판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유족은 작년 초 3천만달러 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바비트는 당시 연방하원의회 의사당 로비 유리문을 부수고 타넘는 순간, 의사당 경찰의 저격 총탄에 사망했다.

연방법무부는 경찰의 정당방위였으며, 의사당에서 대피해야 했던 의원들을 방어하기 위해 발포했다고 믿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상호 합의에 의한 배상결정이 내려졌으며, 누군가의 책임을 따지는 소송이 아니었다.

하지만 토마스 멩거 연방의사당 경찰국장은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과 배상 합의였다”면서 “우리 경찰이 당시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건강한 성인 코로나19백신 보험 커버 안할 수도

연방식품의약품(FDA)이 건강한 성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까다롭게 제한할 방침을 밝혔지만 고령자 및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기존의 승인 절차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FDA는 앞으로 건강한 젊은 성인 대상 백신의 경우 새로운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RCT)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65세 이상과 중증 위험군

환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면역반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승인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위험군의 정의는 비만, 천식, 암, 임신부,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 문제까지 포함해 매우 넓게 적용되며 최대 1억명의 미국인이 해당된다. 65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의 경우, 보험사가 코로나 19백신 비용을 커버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메트로 이용자 80% “안전하다” 평가

워싱턴포스트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워싱턴 메트로 전철과 버스 이용자의 80%가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2019년 73%, 2023년 75%에 비해 상승했다. 특히 연소득 20만달

러 이상 고소득 이용자의 만족률은 작년 58%에서 올해 74%로 크게 높아졌다.

남성은 작년 59%에서 올해 70%로 크게 높아졌으나, 여성은 54%에서 6%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MD 인기 주립공원 예약제 운영

메모리얼 데이 연휴부터 메릴랜드의 인기 높은 주립공원이 주말과 연휴기간 예약제로 운영된다.

메릴랜드 자연자원국(DNR)은 애나폴리스의 샌디 포인트 주립공원과 분스보로의 그린브라이이어

주립공원을 대상으로 메모리얼 데이부터 레이버 데이 사이의 주말 동안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예약은 인터넷 사이트(parkdayuse.maryland.gov/)에서만 가능하다.

김옥채 기자

📞 중앙일보 구독 및 광고 문의: 703-281-9660

불체자 1천불 받고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64명이 최초로 미국정부로부터 1천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자진 추방’(self-deport)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전세기에 올랐다.

이들은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운영하는 앱을 통해 자진 출국을 선택한 불법 체류자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온두라스인 38명, 콜롬비아인 26명이텍사스 휴스턴에서 자발적으로 전세기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 4명도 부모와 함께 송환됐다.

이들은 여행 관련 지원과 1천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인센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했다.

크리스티 님 장관은 다른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그는 “만약 불법으로 이곳에 있다면 주도로적으로 출국해 귀국을 위한 재정 지원을 받으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벌금과 구속, 추방 대상이 되며 다시는 미국에 돌아오는 게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토안보부는 이 방식을 통해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미국 정부가 추방하는 것보다 70%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불법 체류자 추방에는 1인당 평균 1만7121달러가 든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또 CBP 앱을 통해 자진으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접촉하지 않아도 되며 미래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닉 장관은 “만약 불법으로 미국에 있다면, 자진 출국은 체포되는 것을 피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들은 공항에 나오기만 하더라도 무료 항공권을 받고 가장 손쉽게 미국을 스스로 떠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단속에서 체포돼 강제추방될 경우 하루 1000달러씩 벌금을 물리고 미국서 번 재산을 몰수하며 5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6년 소셜연금 2.4% 인상 전망

2026년 소셜연금은 2.4% 정도 오를 전망이다.

전국 시니어 권의 옹호 단체인 ‘시니어 시티즌 리그(SCL)’은 최근 물가 동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소셜연금

에 물가인상분으로 2.4% 정도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셜시큐리티국은 익년 소셜연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3분기(7-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데이터를

인용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10월 중순께는 돼야 파악이 가능하지만, 현재 추세로 보면 2.4% 정도 될 것으로 전망했다.

2.4% 지난 5년래 가장 낮은 수치다.

김성한 기자

☁️ 워싱턴 날씨 (°F)

5월 21일(수)59-54

22일(목)	67-53	☀️	25일(일)	71-55	☀️
23일(금)	69-50	☁️	26일(월)	72-58	☁️
24일(토)	71-50	☁️	27일(화)	66-56	☁️

📞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센터빌 엔드유닛 타운홈
\$3,000
차고 1, 방 3, 화장실 3 1/2

RENT
헤이마켓 엔드유닛 타운홈
\$3,900
차고 2, 방 4, 화장실 3 1/2

1

5

조

통합보험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Life Insurance 생명보험

5 in 1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MetLife

John Hancock

Genworth Financial

Transamerica

NATHENE

Allianz

Prudential

PACIFIC LIFE

ZURICH

Accordia Life

Columbus Life Insurance Company

Nationwide

Lincoln Financial Group

AIG

MassMutual

CS

LSW

Aetna

NATIONAL WESTERN LIFE

MDRT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생명보험 (Life Insurance)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개인 건강보험(Personal Health Ins.)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주택/비즈니스 용자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메디케어(Medicare)

로리 문

Cell. 703-895-7648

send2lorimoon@gmail.com

“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버지니아 (리치몬드)

703.865.8788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한인도 식생활·고령화 탓 전립선암↑

바이든 진단받아 관심커져

최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 진단으로 한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남성의 생식기 분비기관으로, 소변이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통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 정액의 일부를 생성해 정자의 운동을 도와주기도 한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이 약해지면 서 잔뇨감을 느끼는 남성이 많은데, 대부분은 노화 때문으로 여겨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다. 늦게 발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립선암은 초기 치료 시 완치에 가까울 만큼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증상이 거의 없어 일찍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50대 이상 남성이라면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매년 전립선암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주위 뼈나 림프선에 전이가 일어나면 5년 생존율은 33.7~56%로 떨어진 다. 한국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전립선암 환자 수

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국립암센터가 최근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올해 전립선암이 남성 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인들도 한국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전립선암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국은 75세 이상에서 68.2%가 고위험군이지만, 전립선암 검진율은 18.6%로 낮은 편이다. 미국의 검진율은 10%를 밑도는데, 한인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군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인데, 전체 환자 가운데 10% 정도가 유전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장암이나 위암처럼 체내 염증이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김옥채 기자



북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회(KCBMC) Y 연합회(회장 서승훈)가 16일 제4기 청년 재정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KCBMC 청년 재정관리 세미나 열려

버지니아 센터빌에 위치한 코이노스 영생장으로 교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호준 북미주 KCBMC 대학장이 '성경적 재정관리(Christian & Money)'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는 워싱턴지역 10여 개 한인 교회의 청년 약 50명과 CBMC 회원 및 지역 청년부 사역자 20여 명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하여 배움과 교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는 강고는 북미주 KCBMC 이사이자 Y 연합회 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지 강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정과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성경적으로 조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강의했다. 또한 지

강사는 실생활 사례와 말씀을 접목해 청년들의 높은 집중을 이끌어냈다. '돈을 바로 알기' 세션에서는 YOLO (You Only Live Once)의 소비 개념과 GOLF (God Only Lives Forever)의 영적 가치관을 대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돈을 섬김과 비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바로 쓰기' 세션에서는 필요(needs)와 욕구(wants)를 구분하고, 필요에는 적극적으로 지출하되, 욕구에 대해서는 기도를 통해 분별하며 충동소비를 피할 것을 권면했다. 또한 예산 수립을 위한 가계부 작성과, 빚을 조속히 갚기 위한 결단, 투자 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것을 강조했다. 김옥채 기자

글로벌어린이재단 VA 지부 월례회 개최

글로벌어린이재단 버지니아 지부(GCF VA, 회장 김남숙)가 골프대회를 앞두고 5월17일 월례회를 개최했다. 50명이 참석한 이번 월례회에서는 로사박 골프대회 준비위원장의 골프대회 준비 현황 설명과 서울장로교회 김재동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애, 이혜신, 변상희, 유영애, 메리엔 리 씨가 새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GCF 뉴욕지부의 남광희 평생회원이 버지니아 지부로 전입왔다. 김남숙회장은 현재까지의 결식아동 돕기 골프대회 모금액은 언론 광



고 지면에 실린 기부금 외에도 박태영 워싱턴 한인 골프협회장(\$500), Sori System(\$500), 문숙 회장(\$300), 김미경(\$300) 앙드레(\$200), 최민한 전 워싱턴체육회장 등을 포함해 6만달러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한 기자

화랑축구회장배 축구대회 6월22일 개최

지난 4일 페어팩스 스티어링펠로우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화랑축구회장배' 축구대회가 우천으로 연기돼 6월22일 '옥마운트 레크 센터(Oakmont Rec Center)'에서 개최된다.

박희준 워싱턴 대한축구협회장은 20일 "당시 우천으로 인해 대회를 불가피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며 "대회가 연기된 만큼 새로운 일정에 맞춰 세심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참가팀과 경기 진행은 전에 결정된 그대로 이어나갈 방침에 있다. 문의 703-587-2992.

김성한 기자

“납 오염 우려”... 유아식 리콜

퍼블릭, 이유식 파우치

슈퍼마켓 체인 '퍼블릭(Publix)'은 납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그린 와이즈(GreenWise)' 이유식 파우치를 자발적 리콜 한다고 1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배, 키위, 시금치, 완두콩 유아식 파우치이다. NBC 뉴스에 따르면, 퍼블릭은 정기적인 테스트를 통해 문제를 발견했으며 해당 파우치를 매장에서 철수하는 동시에 리콜 조치를 취했다. 19일 현재

까지 질병 발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또 다른 체인인 '타겟'은 지난 3월 굿 앤개더 베이비피, 주키니, 케일&타임 퓨레를 리콜했다. 두 제품 모두 연방 식품의약국(FDA)는 공개 경고를 발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만의 언성을 높이고 있다. 공익과학센터 규제업무 책임자인 사라 소셔는 경고가 부족한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안전한 납 수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한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OMNI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형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두노

DUO NY 212-915-7115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 막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수십년 우정의 종각 비석, LA시 ‘무허가’ 이유 철거

주변 조경사업 진행 이유
한국 정치인들 세운 기념물

LA 인근 샌피드로 지역 ‘우정의 종각’ 주변에 한국 정치인들이 세웠던 수십 년 된 비석들이 갑자기 철거돼 논란이다. 철거는 관리 단체가 우정의 종각 주변 조경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우정의 종 건립 50주년 기념 사업회(임시회장 이가현·영어명 어네스트·이하 사업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LA시 공원관리국으로부터 우정의 종각 인근의 비석 6개 중 3개를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철거된 비석 중에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1998년), 전두환 전 대통령(1981년) 등이 미국 방문 시 기념 식수와 함께 세운 비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는 사업회 측이 LA시에 비석에 대한 설치 허가 여부를 공식으로 문의하면서 비롯됐다. 사업회 이가현 임시회장은 “지난해부터 조경 사업을 준비 중이었는데 종각 주변에 여기저기 설치된 비석이 많았다”며 “LA시공원관리국에 비석들에 대해 문의를 했고 이한동 전 국무총리(2001년)의 기념식수 외에는 아무것도 허가받은 게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임시회장은 “당시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라서 시 절차를 어긴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철거는) 이러한 점을 시정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회 측은 “본래 종각 주변에 총 6개의 비석, 구조물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1981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기념식수를 하며 세운 기념비가 최근 제거됐다.아래 사진은 기념비가 사라진 모습. [독자 제공]

사업회에 따르면 이번에 철거된 3개 비석 외에도 나머지 3개 역시 곧 LA시가 없앨 예정이다. 이 임시회장은 “LA시가 생각보다 (철거 작업을) 빨리 진행한 것 같다”며

들은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이수성 전 총리가 와서 기념 식수를 했을 때 LA평통 회장으로 있던 이영송 박사는 “수십 년 된 비석을 이제 와서 갑자기 철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래도 역사적으로 다 의미가 있는 비석들인데 이런 식으로 없애는 건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우정의 종각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다. 종각의 낙후 상태가 심각한 데다 한국 정부가 추가 지원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면서 방치될 위기에 놓였다. 또, 이를 관리하는 단체가 내홍을 겪으면서 물로 나뉘기도 했다. 그중 한 단체가 이번에 조경 사업을 추진한 우정의 종각 건립 50주년 기념 사업회다. 이와 관련, 이전에 종각 보존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박상준 씨는 “지금은 50주년 기념 사업회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경 사업이나 비석 제거 등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지금은 종각 관리 등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철거된 비석에 대해 사업회 측은 LA시와 협의 중이다. 이 임시회장은 “일단 몇 개는 창고에 있는데 나중에 LA시와 처리 여부를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정의 종각은 지난 1976년 미국 독립 200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가 선물했다. 태평양을 바라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아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김경준·송영채 기자

학자금 대출 연체 급증 대출자 14% 상환 불능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개인 신용점수도 떨어지고 있다. 15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이하 뉴욕 연은)과 CNB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학자금 대출 잔액 중 90일 이상 연체액의 비율이 8%에 달했다. 지난해 말의 연체율(1% 미만)과 비교하면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다. 뉴욕 연은은 또 “학자금 대출자 중 약 14%, 즉 600만명이 학자금 대출을 90일 이상 갚지 못했거나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인 것”라고 덧붙였다. 2025년 1분기 학자금 대출 잔액은 160억 달러 증가해 1조6300억 달러로 늘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와 동시에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자의 신용점수도 하락하고 있다. CNBC는 지난해 10월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가 만료된 이후 수백만 명의 신용점수가 하락했다고 전했다. 실제 신용평가회사 페어아이작(FICO)은 지난 2월부터 평균 신용점수가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신용점수 하락 주요 원인으로는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가 꼽혔다. 뉴욕 연은 역시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신용점수가 최대 171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 연은은 “학자금 대출 연체 여파는 심각하다”면서 “수백만 명의 연체자의 신용점수가 급락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차입비용을 증가시키고 모기지 대출이나 자동차 대출과 같은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아동 성범죄 한인 태국서 체포 송환

아동 성범죄 혐의로 수배 중이던 한인 남성이 태국에서 붙잡혀 송환됐다.

뉴욕 지역 매체인 WENY는 송환된 리처드 용선 림(Richard Yongsun Lim·42)은 14세 미만 아동 강간 및 성적 학대 등 총 4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15일 보도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간 2건, 성적 학대 1건, 성

적 유인(그루밍) 1건 등이다. 아칸소주 페이엠티빌 경찰은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해 3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림씨는 이미 카타르를 거쳐 태국으로 도피한 후였다. 림씨의 체포는 국토안보수사국

(HSI), 인터폴, 태국 사법당국의 공조로 이뤄졌다. 또 국무부와 연방마샬(US Marshals)이 그의 송환을 지원했다. 현재 림씨는 아칸소주 워싱턴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보석금은 100만 달러로 책정됐다. 강한길 기자

중앙일보

구독 문의

703.281.9660



대한민국을 위한 구국 기도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1~3절-

하나님, 절체절명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켜 주세요!
대한민국에 정직하고 진실된 지도자,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을 섬기며 사랑하는 지도자,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과 질서, 사회를 바르게 다시 세우는 지도자,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와 미래를 열어가는 지도자,
대한민국의 복음통일과 선교, 성서한국을 이루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소서!
우리 모두 모여 함께 힘껏 기도합시다!!

일시

2025년 5월 23일 (금) 오후 7시

장소

버지니아 코너스톤 교회
6355 Lincolnia Rd, Alexandria, VA 22312

문의

571-565-7715

주최: 국기모 (가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모임)

수출·소비 잘 버티는 중국… ‘셀 USA’ 딜레마 빠진 미국

미·중 관세전쟁 중간점검

미국과 중국이 ‘90일 관세 휴전’에 돌입한 이후 양국 경제 상황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 경제는 비교적 선방한 반면 미국은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재정 적자 문제까지 불거졌다. 미국이 ‘트릴레마(3중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PR)를 1년 만기와 5년 만기 각각 0.1%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는 지난해 10월 각각 0.25%포인트 내린 후 7개월 만이다. 관세 전쟁 속에서도 소폭 인하에 그쳤다. 인민은행이 ‘금리 카드’를 아껴 써도 될 정도의 경기 상황이란 의미다.

지난 19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 늘었다. 산업 생산은 6.1% 증가했다. 예상치(5.5%)를 훌쩍 넘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를 잘 헤쳐나갔다는 추가적 증거”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1기 미·중 무역 전쟁 때와 달리 미국이 고전하는 모양새다. 이유가 있다.

①중국, 미 수출 의존도 낮아졌다=중국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9.1%에서 2024년 14.7%로 낮아졌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은 지난해 기준 약 4389억 달러로 미국 전체 수입에서 13.8%를 차지했다. 반면 중국

의 미국산 수입은 1435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입의 약 6%에 그친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중국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 전쟁으로 중국에 치명타를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의 경기 침체는 내수가 문제지 수출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봤다.

실제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이 ‘관세 폭탄’을 투하한 지난 4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미국으로의 수출량은 21% 감소했지만, 동남아시아 10개국(21%)과 유럽연합(8%) 수출이 대폭 늘어섰다.

②동맹국도 때리는 미국=지난수 한국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관세 협

상에서 중국은 미국만 상대하면 되지만,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으로 출발점부터 불리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꾸준히 수출 시장을 넓히고, 베트남·태국 등 임금이 저렴한 곳으로 생산기지를 옮겨 공급망을 다변화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규정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2차 제재 등으로 우회 통로를 막았다고 나섰다. 관세를 중심으로 ‘동맹국 패리기’에 나선 상황이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2차 전지 공장 등을 세워 우회 수출입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은 대미 흑자 폭이 큰 편인데, 트럼프식의 자강론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선 동맹·우방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분석했다.

③‘셀 아메리카’ 우려=지난 12일 미국과 중국은 90일간의 관세 협상 휴전에 합의했지만, 미국 금융시장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꾀하려 하는데,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위태롭게 만드는 딜레마를 갖고 있다. 미국의 주식·채권·달러를 대규모 매도하는 ‘셀 아메리카’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여기에 16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며 미국 정부의 ‘고질’인 재정 적자 문제까지 불거졌고, 경기 침체 우려를 더 키웠다.

박유미 기자

중국 유학중개 ‘입학보장’의 민낯

중국의 모 유학 중개 업체의 광고 문구다. 이들은 학력과 성적을 위조해 영·미 명문대 입학에 ‘보장’하는 불법 영업으로 폭리를 취한다. 해당 중개 업체들은 주로 홍콩·미·영 대학을 타깃으로 위조된 성적표·조작된 졸업장·대리시험 등 수법을 동원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다.

중국 《남방인물주간》은 중국 유학 중개업체 ‘팅다치디’를 통해 영국 맨체스터대학교에 입학한 왕제(王琢·가명)의 사례를 보도했다. 체제 내 취업을 준비하던 왕제는 27세에 유학을 결심하고 이 중개 업체에 34만 위안(약 6500만원)을 지불했다. 이 업체는 내부 추천 경로를 통해 100% 입학을 보장, 실제 시전액 환불을 약속했다. 왕제는 2023년 9월 맨체스터대 예술·언어·문화대학 석사 과정에 입학했다.

하지만 올해 2월, 그는 학교로부터 ‘학위 위조 청문회’통보를 받았다. 등록된 학부 대학에 왕제의 재적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 측이 제시한 그녀의 입학 서류에는 뉴욕대(NYU) 명의의 학위증과 성적표가 포함돼 있었다. 그녀는 실제로 이 대학에 다닌 적이 없었고, 해당 학교의 학위증을 입학 서류로

제출했다는 사실조차 처음 알게 됐다. 왕제는 결국 퇴학 조치됐다.

유학 중개업체들이 내세운 ‘입학 보장’ 서비스는 허위 성적표·위조 학위·허위 공증서 등 각종 조작 방식이 동원된다. 옥스포드·케임브리지·하버드 등 A급 명문대 입학은 15만 달러, 펜실베이니아·컬럼비아대 등 B급 대학은 9만 달러, 맨체스터·에든버러 등 C급 대학은 7만 달러에 이르는 요금을 요구한다.

고객의 ‘입학 보장’ 유학 상품은 실력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해외 명문대 진학의 문을 열어주며 그 대가로 높은 수익을 노리는 구조다. 역올한 피해자도 있지만 스펙을 통한 ‘몸값 상승’을 기대하는 이들의 수요와 결합하며 시장

은 커졌다. 최근 중국 노동절 연휴 기간 중국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동시임 사건’은 이 같은 해외 유학 시스템의 그늘을 드러냈다. 동시임은 공산당 고위 간부의 딸로 미국 컬럼비아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중국 최고 의과대학인 협화의학원 박사 과정에 특례 편입했다. 이후 빠른 속도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수도 베이징의 중일우호병원에서 수련의로 일해 왔다.

동시임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그녀는 의사 면허 박탈 및 학위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 없이 해외 학위와 배경을 앞세워 주요 보직을 차지한 사례로 비판 여론은 거센다.

김매화 기자

바이든 건강문제 조직적 은폐 의혹 “보좌관 이름도 기억 못해”

CNN 앵커 등이 쓴 책에서 주장 “재선 원한 질 여사, 병세 악화 부인”



조 바이든(사진) 전 대통령이 적어도 취임 2년 차(2022년)부터 “매일 만나는 보좌관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미 대선 때 제기됐던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와 인지력 저하가 사실은 이미 집권 초반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CNN 앵커인 제이크 태퍼와 약시오스 기자 앨릭스 톰슨이 20일(현지시간) 출간한 『오리지널 신(Original Sin·원죄)』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처럼 집권 초부터 인지력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 지난해 대선 중에는 “휠체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심각한 논의가 있었지만, 고령 논란을 피하기 위해 휠체어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

『원죄』는 백악관과 선거 캠프 관계자 200명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집필됐다. 이들은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의 가족들과 핵심 참모들이 이런 문제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

기했다.

저자들은 “지난해 6월 첫 대선 TV 토론에서 세계가 본 것은 돌발 상황이 나 감기, 혹은 준비가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준비된 사람, 또는 조금 피곤한 사람이 아니었다”며 “바이든의 가족과 그의 팀은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트럼프의 또 다른 임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년 간 인지력이 저하돼 온 81세 노인을 집무실에 4년 더 두려는 시도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특히 “질 바이든 여사는 백악관 참모들에게 자신을 ‘닥터 B’라고 호칭하게 지시했다”며 “질 여사는 (바이든의) 재선 출마 결정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사람 중 하나이자, 그의 병세 악화를 가장 강력하게 부인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김형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풀인

마이클 장

풀인과 함께라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저”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려조)

웨일리노래방

40

300m

뉴타운

미려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북한 미사일 쏟아진 그날 ... “기억이 꺼졌다”

키아우 시민, 종전에 대한 기대 낮아
“푸틴, 애초에 전쟁 끝낼 의지 없어”

차량이 덜컥거리며 골목길로 들어갔다. 4~5층 규모의 낡은 아파트가 다닥다닥 붙은 주거 밀집 지역이었다.

동유럽에서 인기 있는 스코다 소형차들이 입구에 주차된 게 눈에 들어왔다. 5분가량 아파트촌 안쪽으로 들어가자 꽃다발 더미와 인형에 뒤덮인 화단이 나왔다. 사진 속 고인들은 슬픔 없이 웃고 있었다. 빗방울이 액자를 타고 흘렀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아우의 한 아파트촌, 러시아가 북한제 KN-23(북한명 화성-11가) 미사일을 파루는 현상이었다. 이 공격으로 12명이 숨지고 90여명이 다쳤다고 한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찾아간 아파트는 한 달여 전 피습 때와 마찬가지로 지붕과 벽이 뜯겨 나가고, 창문들이 깨져 있었다. 담배를 피우던 50대 주민 유라는 “잠깐 깨는 바람에 부엌에 갔는데, 그 이후 기억이 없다”고 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침대였다고 한다.

#1 자유



지난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아우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한 달여 전 러시아가 발사한 북한제 KN-23 미사일에 맞아 완전히 파괴된 뒤 흔적만 남아있다. 박현준 기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막심 티모페이브(19)는 키아우로 피란하며 러시아 친척들과 절연했다.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으로 러시아인이 대거 이주해 통혼했다. 전쟁 전만 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는 이가 꽤 있었다. 그러나 막심은 “나는 자유로운 우크라이나인”이라며 “러시아인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사랑하는 우크라이나어는

‘자유(볼라)’, 가장 미워하는 러시아어도 ‘자유(스보보다)’”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볼라’에는 ‘스보보다’에는 없는 영혼의 깊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볼라가 ‘스스로 선택하고 억압을 부순다’는 의미라면, 스보보다에는 뜻이 담겼다고 한다.

종전을 두고 외교전이 활발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의 기대감은 낮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의

전화통화(19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의 평화협상(17일)이 팽탕으로 끝난 데 대해서도 놀라워하지 않았다. 푸틴에 대해선 “전쟁을 끝내려고 했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인간”(20대 대학생)이라고 했다.

#2 상실

우크라이나 독립광장에서는 거대한 깃발 더미를 마주할 수 있다. 전몰장병의 유족들이 전사한 남편과 아들의 이름, 생몰 연월일을 적어 하나둘씩 쫓아

두기 시작한 게 지금의 모습이 됐다. 국기 하나당 생명 하나인 셈이다.

남겨진 사람들도 다양한 형태의 상실을 겪고 있다. 한 키아우 주민은 ‘영웅들의 마을’ 이야기를 들려줬다. 전사한 장병들에게 정부가 ‘영웅’ 칭호를 부여하는데, 그 때문에 한 마을에만 수십 명의 영웅이 나온 곳이 있다는 것이었다. 24세 아들의 전사 통지를 받은 그 마을의 한 어머니는 “영웅이 아닌 아들이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남기고, 보통사람처럼 사는 그런 미래를 원했다”고 흐느꼈다고 한다.

#3 미래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 역시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다. 프로코펜코 알료나(19)는 “전쟁의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집을 만들기 위해” 건축학과에 진학했다고 한다.

청년 사업가인 이반 몰차노브(29)는 우크라이나군에 차량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전쟁이 끝나고 상이군인들이 귀환하는 만큼 집의 입구 형태부터 바꿔야 한다”며 관련 건축 사업을 준비 중이다.

박현준 기자

공화당서 IRA 세액공제 조기폐지 탄력

한국 배터리·태양광 기업 등이 수혜를 입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한 세액공제가 당초보다 더 빠르게 폐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공약이 담긴 법안 처리를 위해 당내 강경파가 주장해 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조기 폐지를 수용하고, 나아가 2028년까지 IRA 세액공제를 전면 폐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19일 미 정치전문 매체 펀치볼뉴스는 “마이크 존슨(사진) 하원의장이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더 빠르게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공화당 강경파에게 제안했다”며 “나아가 공화당 지도부는 2028년까지 모든 IRA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거의 다 왔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올바른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IRA 세액공제 완전 폐



지를 주장해온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한 차례 부결된 끝에 지난 18일 찬성 17표, 반대 16표로 가까스로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하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폴리코도 “공화당 강경파들이 지도부로부터 법안 수정을 약속 받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수정 사항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정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철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공화당 강경파인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은 X(옛 트위터)를 통해 “현재 법안은 신종 녹색 사기 보조금(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절반 정도만 폐지하고 있다”며 “협상이 진전을 이뤘지만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차 구매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이다. 하위 항목에 포함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의 경우 미국 내 태양광 패널, 배터리 부품 제조 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미국에 투자한 한국 태양광·배터리 기업들도 혜택을 받았다. 현재 법안은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겼는데, 2028년 조기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와 신규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된다.

변수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지역구를 둔 공화당의 온건파 의원들이다. 공화당 소속의 원 21명은 지난 3월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존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조기 폐지가 담긴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최종 폐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원에도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위윤희 기자

머스크의 xAI 데이터센터 공해 논란

주민들 “숨막힌다” 반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의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오염 물질 배출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센터가 있는 미국 테네시주 주민들 사이에선 반발 여론이 확산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19일 CNN 등에 따르면 xAI의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가 들어선 테네시주 멤피스 서남부 지역 주민들은 이 시설이 내뿜는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해 “숨이 막힌다”고 호소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해 이 지역의 211만㎡ 규모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세우고 ‘콜로사스’로 명명했다. 그는 이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훈련 시스템”이라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센터가 AI 훈련을 위한 슈퍼컴퓨터를 가동하면서 발생했다. xAI는 수십 대의 가스 터빈을 설치해 여기에 필요한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가스 터빈을 가동하면 전식 등을 유발하는 질소 산화물과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폐를 통과해 혈류로 들어갈 수 있는 초미세먼지 등



머스크가 테네시주 멤피스에 세운 xAI 데이터센터

이 대기로 다량 배출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환경단체가 지난 3월 촬영한 항공 사진에 따르면 xAI는 이 지역에 35개의 가스 터빈을 설치했다. 지난 촬영한 열화상 사진에선 이 중 33개의 터빈이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곳에서 4.8k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폐 질환자 세라 클래드니는 이 시설과 관련 “우리의 건강과 지역 사회의 안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xAI의 가스 터빈이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허가도 정식으로 받지 않았고, 당국이 1년 미만으로 운영되는 임시 터빈에 허가 없이 가동을 허용하는 법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선영 기자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1. 웃은 하이, 프로스트비들 2025 새집 \$1,450,000 방 5, 화 5.5, 5,000sqft, 차고 2, 모던 디자인, 123/236/GMU	2. 찬들리 하이 싱글 \$1,050,000 방 4, 화 3.5, 차고 2, 4,0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rner	3. 찬들리 하이 싱글 \$1,150,000 Rocky run middle, Polpa Tree Elementary, 최고 학교, 방 6, 화 3.5, 4,000sqft, 성당근처, 66/28/50/29	4. 센터빌 싱글 \$1,150,000 새집같은 모델하우스, 모던 디자인, 전부 리모델링, 방 6, 화 4.5, 차고 2, 솔라 패널, 6,228sqft	5. 센터빌 싱글, VIRGINIA RUN \$925,000 방 4, 화 4, (메인/ 풀베스), 차고 2, 3,2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9/28/66	6. Clifton 싱글 \$950,000 방 4, 화 3.5, 차고 2, 3,300sqft, 센터빌 하이 세입처럼 전부 업그레이드, 새 지붕, 새 HVAC	7. 우드브리지 싱글 \$639,000 방 3, 화 2.5, 차고 1, 좋은 학교 / 동네, 전부 업그레이드, RT1/95/234	8. 사우스라이딩 타운 \$645,000 2014년, 방 3, 화 2.5, 차고 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9. 애쉬번 타운 \$670,000 2012년, 방, 화 3.5, 최고 학교, RT267/50/28/607, 필리스 공영	10. 게인스빌 골프 싱글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니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11. 맥클린 콘도 \$485,000 방고 환풍 8층, elevator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차고 2, 테라스 방 2, 화 2, 1335sqft	12.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 3, 화 2.5, 차고 1, 1,778sqft, RT29, RT66, Giant, Gateway Shopping mall	13. 찬들리 새타운 맨트 \$3,600 방 3, 화 3.5, 차고 2, 2,400sqft, 28/50/66/286, wegman, Costco, 교통요지, 센터빌 인접	14. 매매/리스 *센터빌 중심 상업중 미장원 오피스,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게인스빌 상업중 미장원 맨트 \$3,300/m, 1300sqft, 29/66, 7-11점
8277 ROXBOROUGH LOOP, GAINESVILLE, VA 20155 방 4, 화 4.5, 차고 2, 4,433 sqft, 2004, 0.3acre, 맥리오, 스크린맥, 계단 없는 메인레벨 1층, 방 2, 풀베스 2.5										Under Contract			



감사의 노래 Songs of Gratitude

연세장로찬양단 Yonsei Elders Choir

[연세장로찬양단 소개]

연세장로찬양단(Yonsei Elders Choin)은 연세대학교 동문장로회 소속으로 2018년에 창단된 남성 선교합창단이다. 그동안 매년 연세조찬기도회 및 학부 채플 찬양, 동문 관련 교회 및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고려대학교 성탄축하예배에서 연주함으로 대학간 신앙교류와 우의를 다져왔다. 그동안 3회의 정기연주회를 통하여 모교를 더욱 사랑하고 연세정신을 아름답게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해 왔다. 특별히 2025년 연세대 창립 140주년을 맞이하여 22명의 단원(솔리스트 이승환, 김미현)이 참여하여 2025년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미국 뉴욕, 뉴저지 일원의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가와 모교회 및 그가 수학한 뉴부룬스윅 신학대학교를 방문하여 '감사음악회(Thanks Concert)'를 개최한다. 아울러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과 필라델피아 영생교회를 방문하여 연주한다.

[Yonsei Elders Choir Introduction]

The Yonsei Elders Choir is a men's missionary choir affiliated with the Yonsei University Alumni Elders' Association and was founded in 2018. The choir has actively engaged in worship ministry through annual performances at the Yonsei morning Service, undergraduate chapel services, and various alumni-related church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dditionally, the choir has promoted inter-university faith exchange and friendship through annual performances at the Korea University Christmas Celebration Service. Through three regular concerts, the choir has continuously expressed love for its alma mater and strived to embody the Yonsei spirit beautifully. In particular, to commemorate Yonsei University's 140th anniversary in 2025, 22 choir members, including soloists Lee Seunghwan and Kim Mihyun, will host a "Thanks Concert" tour from May 22 to May 29, 2025. During this concert period, they will visit the home of missionary Underwood, his home church, and 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 in New York and New Jersey, USA. Additionally, the choir will perform at the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in Washington, D.C, and Youngsang Church in Philadelphia.

일정 (Schedule)

- 5.23 17:00 뉴 브룬스윅 신학대학교
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
- 5.25 08:30 뉴저지 한소망교회
Hope Presbyterian Church(New Jersey)
- 5.25 10:45 뉴저지 그로브 개척교회
Grove Reformed Church(New Jersey)
- 5.25 16:00 뉴저지 동산교회
Dongsan Church(Thanks Concert)
- 5.26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Park(Washington D.C)
- 5.27 19:00 필라델피아 영생교회
Youngsang Church(Philadelphia)

단원 명단 (Choir Members)

- | | |
|--------------|--------------------------------------|
| 지휘 Conductor | 석성환(Seock Sunghwan) |
| 반주 Piano | 이주봉(Lee Jubong) |
| Ten.1 | 허재호(Heo Jaeho) 박일후(Park Ilhoo) |
| | 강현욱(Kang Hyunwook) |
| Ten.2 | 변양수(Byun Yangsoo) 유영균(Yoo Youngkyun) |
| | 김승남(Kim Seungnam) 이재현(Lee Jaehyun) |
| | 이용구(Lee Yonggu) |
| Bass1 | 김동수(Kim Dongsoo) 김장렬(Kim Jahngnyul) |
| | 이낙종(Lee Nakjong) 이명호(Lee Myoungcho) |
| | 정병규(Chung Byunggyu) |
| Bass2 | 김동배(Kim Dongbae) 이찬영(Lee Chanyoung) |
| | 장인환(Jang Inhwan) 한동성(Han Dongsung) |
| | 손현규(Son Hyunkyu) |
| Solists | 소프라노 Sop 김미현(Kim Mihyun) |
| | 바리톤 Baritone 이승환(Lee Seunghwan) |

Program

- | | |
|-----------------|---|
| 지휘 Conductor | 석성환 Seock Sunghwan |
| 피아노 Piano | 이주봉 Lee Jubong |
| 합창 Chorus | 연세장로찬양단 Yonsei Elders Choir |
| 인사 말씀 Greetings | |
| 단장 이명호 장로 | Choir Director, Elder Lee Myoungcho |
| 합창 Chorus | •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 A. Malotte
• 주님 나를 세워주시네(You raise me up) / B.Graham
• 사랑해요 주님(I Love You, Lord) / LKlein |
| 독창 Solol | Baritone 이승환 Lee Seunghwan
• 용사여 용감하라(Arm, arm ye brave) / G. Handel
• 담대하라(Be Strong) / 손경민 Son Kyungmin
Soprano 김미현 Kim Mihyun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I will always praise the Lord)
박재훈 Park Jaehoon |
| 합창 Chorus | • 놀라운 은혜(Amazing Grace) / American traditional song
• 감사(Thank you, Lord) / 손경민 Son Kyungmin
•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The Lord is my Shepherd)
나운영 Na Woonyoung |
| 찬조연주 Guest | Tenor 황진호 Hwang Jinho
• 하나님의 은혜(Grace of God)/ 신상우 Shin Sangwoo
Soprano 지혜인 Ji Hyein
• 거룩한 성(Holy City) / S. Adams
Tenor 조상범 Jo Sangbum
• 주 한분만이(God and God alone) / P. Mchugh |
| 듀엣 Duet | Soprano 김미현 Kim Mihyun
Bariton 이승환 Lee Seunghwan
• 주의 날 기다립니다(Underwood's prayer)
전영훈 Jeon Younghoon |
| 합창 Chorus | • 송축해 내 영혼(Bless the Lord oh my soul)
arr.by 서선애 Seo Sunae
• Arrang and Amazing Grace
Korea & America Traditional Song |

아직도 윤의 늪, 국민의힘 원팀 만길

당 지도부, 김계리 입당 보류하자
김재원 “윤 변호한 게 왜 오점인가”
한동훈·홍준표는 선대위 합류 안해

‘반(反)이재명 연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촉발된 이번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설정한 전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각종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그에 반대하는 세력을 한데 모아 ‘반명 연합군’을 구성한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이 돼야 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을 국민의힘이 미적거리면서 이번 대선 구도는 여전히 ‘윤석열 심판론’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최측근인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2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대리인단 출신으로 ‘윤여개인 신당’ 창당을 주도했던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 보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다는 게 큰 오점이 되는 게 아닌데 그것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용태 비상

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개최를 지시하며 김 변호사의 입당을 보류시킨 데 대해 다른 의견을 밝힌 것이다. 보통의 경우 당원 신청은 별도의 자격 심사 없이 승인된다.

김 변호사의 입당과 관련한 당 지도부의 견해차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 그림자에 갇힌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앞서 당 쇄신을 위해 김 후보가 지명한 김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등 거취 압박에 나섰을 때도 친윤계 중진은 물론이고 김 후보조차 “윤 전 대통령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미온적 반응을 보였었다.

최근 발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현재까지 ‘1강·1중·1약’ 구도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51%, 김문수 후보 29%,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8%였다. 한국경제 의뢰로 입소스가 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51%, 김문수 32%, 이준석 7%로 비슷한 흐름이었다.

이는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의 응집력을 기대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



국민의힘 특사단 만난 홍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가운데)이 지난 19일 미국 하와이에서 국민의힘 김대식·유상범 의원(왼쪽부터) 등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 의원은 20일 한 방송에 출연해 홍 전 대구시장이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사진 김대식 의원실]

연에 인색한 탓에 보수 진영 전체가 ‘윤석열 심판’이란 프레임에 갇혀버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40% 전후의 민주당 정당 지지도를 상회하는 반면, 김 후보 지지율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와 비슷한 흐름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반명 연대는커녕 당내 통합조차 흔들리면서 김 후보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김 후보와 경선 경쟁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는 20일부터 지방 유세에 돌입했다. 첫 유세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첫 청년 참모였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 대신 친한계 정연욱 의원을 공천한 부산 수영구였다. 한 전 대표의 유세 복장엔 ‘김문수’ 이름이 없었다.

취체진과 만난 한 전 대표는 “김 후보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큰 생각

차이가 있지만 그게 바뀌지 않는다고 뒤에 있기에 상황이 절박해서 거리로 나왔다”면서도 “제가 말한 승리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반명) 빅텐트가 아닌 친윤, 자통당(자유통일당) 빅텐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탈락 뒤 정계은퇴를 선언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미국 하와이까지 찾아온 특사단의 설득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선대위 합류는 거절했다고 한다.

이처럼 당내 주요 인사들이 김문수 후보와 ‘원팀’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준석 후보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김 후보는) 확장성의 한계로 중도층과 젊은 층의 표심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처럼 여론조사에서 40% 후반, 50%를 상회하는 다자간 지지율이 나오면 단일화 등 정치공학적인 시나리오가 작동하기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대법,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 착수

업소 방문해 사진 찍고 현장조사
공수처, 해당 사진 수사3부에 배당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귀연(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해당 업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

행했다. 주점 맞은편 건물 관계자는 “법원에서 나와 업소 내부를 한 차례 사진 찍고 조사하고 갔다.

직원들이 명찰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16일은 윤리감사관실이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날이다. 윤리감사관실은 당사자인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도 사진 촬영 경위와 동석자,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본인에게 확인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기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주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당일 오후 지 부장판사가 술집에서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출입한 날짜를 특정해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사진 원본을 비롯해 대법원에 넘긴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달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서안·이수민 기자

김용태 “후보 배우자 TV토론하자”… 이재명 “즉흥적이고 무책임” 일축

이 “미혼인 이준석은 어떻게 하나”
이준석 “김, 제 앞이라면 혼냈을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김문수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의 TV토론 생중계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즉각 “즉흥적이고 무책임하다”며 거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다. 영부인은 대통령 곁에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있는 공인으로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영부인은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다.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사전투표 전 (김문수 후보의) 설난영 여사와 (이재명 후보의) 김혜경 여사, 두 배우자 TV토론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철학과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각자 견해를 진솔하게 나눠 달라”며 23일까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김문수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인들의 리스크가 대통령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있었기 때문에 검증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배우자와 가족에 대해서도 국민이 알 필요가 있고, 알고 투표하면 더 정확한 투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난영 여사도 최근 보수 성향 유튜브와 일부 방송 인터뷰에서 “법카로 개인이 어떻게 하는 건 상상을 못 한다”거나 “법카로 밥을 사먹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김 여사를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김혜경 여사

의 도덕성 논란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실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여사는 경기도청 법원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항소실에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과 청렴성고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토론을 촉구했다.

이러한 제안에 민주당은 “황당하고 해괴한 제안”(조승래 수석대변인)이라며 즉각 일축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장난치듯이 이벤트화해선 안 된다”며

“그러면 (미혼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또한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지, 부인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인 이혜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코미디 같은 제안이 앞뒤 생각 없이 나왔다니 놀랍다”며 “설난영씨가 제2의 김건희 같은 사람이라는 직감이 든다”고 적었다.

이준석 후보도 기자들과 만나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것이냐”며 “김용태 위원장이 제 앞에 있었다면 아마 저한테 크게 혼냈을 것”이라고 했다.

이창훈·조수빈 기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겠습니다.”

Cheltenham Homecare

첼튼햄 홈케어

간병인 서비스 (Homecare Services)

24시간 맞춤형 간병 서비스
환자 개개인에 맞춘 경험과
정성으로 돌보는 프리미엄 케어

“신청부터 승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도와드립니다.

가족 간병인 가능 및 환영
*간병인으로 일하실 분 찾습니다.

첼튼햄 홈케어 문의 전화: **800-764-1005**

버지니아 | 펜실베이니아 | 메릴랜드 | 조지아 | 뉴저지
7501 Little River Tpke., Ste 205, Annandale, VA 22003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5월 프로모션

기간: 4.29.2025-5.28.2025 조건: 기간내 주문 & 5월 내 설치

타사제품 보상 혜택!

- 일시불 최대 25% off
- 렌탈 계약시 최대 5개월 면제



고민 끝에 바꾸셨다면, 더 풍성하게 챙겨드릴게요.

BRAND STORE

VA 직영점

13826 Braddock Rd #C, Centreville, VA 20121 Tel. 571-321-7776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H Mart Annandale 240-595-2257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2T/G, CP-P011T/G, CP-QN1401SW, CP-WN601HW, CP-WN601SW, CP-KN501HW, CP-KN501SW, CP-FN601HA, CP-FN601SA, CP-FR601HW, CP-FR601SW, CP-ACR1620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일 반 제 품 CP-ADR051UW, CP-MN031W/WH, CAC-C1020FW, CAC-AA0910FW, CBT-IS1131REW/RRW, CBT-I1030RW, CWS-AO201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키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패키지 상품은 사은품 적용 제외

CUCKOO

CUCKOORENTAL.COM
888.700.0425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이동버스에서 재외국민 투표 독려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을 방문해 한 어르신과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 “압도적 승리 말고 응징”

〈이재명〉

경기 유세서 “우리가 지면 대한민국 진 것”
지사때 추진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재추진

“6월 3일은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압도적인 응징의 날’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시 심판론을 꺼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 유세에서 “우리는 ‘득표율 몇 프로’ 이런 소리 하지 않는다. 단 한 표라도 이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면 대한민국이, 정의가, 헌법이 지는 것”이라며 “결코 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세의 마무리 발언도 “압도적으로 응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이었다.

고양 유세에서는 ‘커피 원가 120원’ 논란에 대한 반박에 또 나섰다. 이 후보는 “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조작·왜곡하는 건 싸우자는 거다.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러고 있다”며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보도해야 할 언론 일부가 거기에 동조하면서 장난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일산대교 무료화’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고양 유세에서 “정말 억울하지 않냐. 강 하나 건너는 데 돈을 내야 하고, 그것도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라며 “대통령이 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무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10월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일산대교

통행료(승용차 기준 1200원)를 무료화했으나, 법원이 일산대교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한 달 만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캠프 구성원에게 “연설과 인터뷰, 방송에서 예상 득표율 언급과 선거 결과 관련 ‘낙승’ ‘압승’ 등 발언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냈다.

전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60%, (김문수) 30%, (이준석) 10%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의정부·파주=조수빈 기자

이준석 “김문수 단일화 구태… 이재명 호텔경제학 천박”

“단일화 얘기 나누자” 안철수 제안도 거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0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과정 자체가 구태”라며 거듭 선을 그었다.

오는 25일부터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만큼 국민의힘에선 24일까지를 ‘단일화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누구보다도 (이준석) 후보께서 우리 당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를 잘 알고 있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자”며 만남을 제안했지만 이 후보 측은 거절했다.

대신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

김 “난 방탄입법 필요없다”

〈김문수〉

서울 유세서 “이재명, 구치소 들어가면 안전”
이준석 두고 “나와 전혀 다른 게 없는 후보”

“여러분 저는 방탄조끼도 안 입었습니다. 방탄유리도 필요 없습니다. 방탄 입법도 필요 없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서울·경기권 유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집중 공격을 펼쳤다. 지역맞춤형 공약 위주 유세를 했던 지난주와 달리 “도둑놈” “범죄자” “연탄가스” 등 독한 표현을 썼다.

강서구 남부골목시장에서 베이직색 점퍼와 분

색 셔츠, 면바지 차림으로 유세차에 오른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겨냥해 “누구 속터지게 하려고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자영업자를 살린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저 김문수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앞에서는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방탄조끼 입은 것도 모자라서 방탄유리도 앞에 두고, 방탄 법을 만들어서 대법원 자체를 완전히 쥐고 흔든다. 선거법 허위 사실 유포죄도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거 말이 되느냐”며 “도둑놈이 경찰서 다 없애자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주장했다. 송파구에선 발언 수위가 더 강해졌다.

김 후보는 “감옥에 앉아 있으면 만고에 방탄조끼 입을 필요가 없다. 국가에서 교도관들이 지켜준다”며 “동부구치소가 송파구에 있죠, 이재명 후보도 저기 들어가 계시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안카드 유용 의혹을 들며 “저고 제 아내고 법카를 써본 적이 없다. 이렇게 조금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나오는 연탄가스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유세차에 오를 때마다 큰절을 올렸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준석 후보와 제가 전혀 다른 게 없다. 그간 우리 당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 후보가 밖에 나가 계시는데 같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정부조직 개편’ 큰틀 잡은 이재명… 캠프 “구체안은 나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권 초반부터 ‘기획재정부 쪼개기’ 등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속도전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방향을 정했다. 조만간 발표될 공약집에선 큰 틀만 담고, 정부 출범 후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자문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다른 국정 과제에 차이가 없도록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취지다.

20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책본부는 실무 단계의 공약집 작업을 마쳤다. 이 후보가 전체적으로 본 뒤 빼야 할 공약과 넣어야 할 공약을 선택하는 단계가 남

았다고 한다. 정부조직 개편 관련 공약들도 이 후보에게 보고됐고, 최종 방향에 대한 이 후보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정책본부 핵심 관계자는 “나중에 국정자문회의가 가동하면 거기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많았던 기재부 개편의 경우

에도 공약집에는 ‘경제정책 수립·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는 방향만 명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해서도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 기능을 부여해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만 담겼

다. ‘통상’ 기능을 분리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문제도 큰 방향만 담는다고 한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뒤 빠르게 추진할 국정과제가 있다”며 “정부 출범하자마자 기재부를 나누는 작업을 시작하면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은 오는 8월까지다.

윤성민 기자

It's Okay,
with
Jesus!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버스에 필요한?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HANS WORLDWIDE

데이빗한 재키조 조앤한 세라정 애나김 김문배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아이슬란드 & 그린랜드
12박13일 8/4(월)~8/16(토)
\$12,900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중앙 아시아 3국 실크로드 여행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탄/카자스탄
13박14일 9/8(월)~9/21(일)
\$5,290 항공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서유럽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탈리
10박11일 9/14(일)~9/24(수)
\$3,590 항공불포함 인솔자:애나 김

동유럽 & 크로아티아,돌로미티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13박14일 9/30(화)~10/13(월)
\$4,890 항공불포함 인솔자:애나 김

남만의 동유럽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7박8일 9/30(화)~10/7(화) \$2,890 항공불포함
크로아티아 & 이태리 돌로미티 이지 트레킹
7박8일 10/6(월)~10/13(월) \$2,990 항공불포함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10/15(수)~10/26(일)
\$3,690 항공불포함 인솔자:세라 정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10/19(일)~10/31(금)
\$3,690 항공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네팔과 부탄 여행
12박13일 11/6(목)~11/18(화)
\$5,490 항공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일본의 알프스-알펜투어+북해도 맛여행
12박13일 11/7(금)~11/19(수)
\$5,995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11/11(화)~11/20(목)
\$4,090 항공불포함 인솔자:데이빗 한

팬스기빙 코스타리카
4박5일 11/26(수) - 11/30(일)
\$2,090 항공포함 인솔자:세라 정

가을
고국의 맛! 프리미엄 고국투어 모든 옵션 포함!!

10/15(수)~10/25(토)
제주포함 전국일주 10박 11일 \$2,990 항공 불포함
서울-전주-여수-남해-거제-외도-부산-경주-포항-안동-속초-제주
내륙일주 7박 8일 \$2,390 항공 불포함

볼티모어 출발 오션뷰 \$1340 인사이드 \$1240
찰스톤/올랜드/마이애미/낫소
바하마 크루즈
2026년 1/16(목)-1/24(토) 8박9일 인솔자 동행

한스 인솔자와 떠나는 해외여행

항공 불포함 인솔자

6/3(화)~6/15(일) 코카서스3국 12박13일 **마감**
6/10(화)~6/19(목) 알프스 하이лай트 9박10일 **마감**
7/1(화)~7/14(월) 북유럽+발틱 13박14일 **마감**
7/17(목)~7/22(화) 캐나다 록키 5박6일 **마감**
8/1(금)~8/15(금) **마감임박**
아프리카 + 블루 트레인 14박15일 \$16,400 **조앤 한**
8/1(금)~8/13(수) (케나, 빅토리아폭포, 남아공) **마감임박**
아프리카여성 싱글 룸메이트 가능 12박13일 \$12,900
8/4(월)~8/16(토)
아이슬란드 & 그린랜드 12박13일 \$12,900
8/4(월)~8/17(일)
아이슬란드 7박8일 \$6,900 **재키 조**
8/10(일)~8/16(토)
그린랜드 6박7일 \$5,950
8/13(수)~8/19(화) 알래스카 6박7일 **마감**
9/8(월)~9/21(일)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탄/카자스탄
중앙 아시아 3개국 13박14일 \$5,290
9/8(월)~9/17(수) **조앤 한**
우즈베키스탄 9박10일 \$3,990
9/14(일)~9/24(수) 프랑스/스위스/이탈리
서유럽3개국 10박11일 \$3,590 **애나 김**

9/30(화)~10/13(월)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동유럽 & 크로아티아,돌로미티 13박14일 \$4,890
9/30(화)~10/7(화)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애나 김**
동유럽 7박8일 \$2,890
10/6(월)~10/13(월)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돌로미티 7박8일 \$2,990
10/9(목)~10/18(토) 볼티모어 출발 **마감**
캐나다&뉴잉글랜드 단풍 크루즈 9박10일 **인솔자**
10/9(목)~10/19(일)
포르투갈 맛여행 일주 10박11일 \$4,890 **조앤 한**
10/15(수)~10/25(토)
가을, 프리미엄 고국투어 10박11일 \$2,990 **인솔자**
10/15(수)~10/26(일)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3,690 **세라 정**
10/17(금)~10/30(목) 프랑스 일주 13박14일 **마감**
10/19(일)~10/31(금)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조앤 한**
10/22(수)~10/31(금)
튀르키예 하이лай트 9박10일 \$2,890
11/6(목)~11/18(화)
네팔과 부탄 여행 12박13일 \$5,490 **조앤 한**
11/7(금)~11/19(수) 일본의 알프스-
일본 알펜투어+북해도 맛여행 12박13일 \$5,995 **재키 조**

11/11(화)~11/20(목) 카이로, 멤피스, 아스완- 아부심벨-아스완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090 **데이빗 한**
11/26(수)~11/30(일)
팬스기빙 코스타리카 4박5일 **항공포함**\$2,090 **세라정**
11/29(토)~12/12(금) **마감임박**
하와이+뉴질랜드+호주(시드니) 13박14일 \$6,590 **재키 조**
12/1(월)~12/12(금)
뉴질랜드+시드니 11박12일 \$4,950
12/1(월)~12/7(일)
쿠바 6박7일 \$2,987 **조앤 한**
2026년 1/10(토)~1/19(월) SMALL GROUP TOUR **NEW**
오만,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9박10일 \$5,090 **조앤 한**
1/16(목)~1/24(토) 바하마 크루즈(볼티모어 출발)
오션뷰 \$1,340 인사이드 \$1,240 **인솔자**
1/29(목)~2/8(일)
신비의 북인도 10박11일 여행 \$3,490 **재키 조**
1/29(목)~2/10(화)
북인도+두바이 Stop Over 12박13일
2/3(화)~2/8(일)
발렌타인 코스타리카 5박6일 **항공포함**\$2,190 **세라 정**
2/10(화)~2/23(월)
남인도+스리랑카 13박14일 **조앤 한**
2/14(토)~2/23(월)
스리랑카 문화탐방 8박9일

2/17(화)~2/26(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190 **데이빗 한**
2/25(수)~3/5(목)
페루 일주 8박9일 \$3,595 **재키 조**
3/5(목)~3/15(일)
파타고니아 10박11일 **재키 조**
3/5(목)~3/19(목)
파타고니아 & 이과수 폭포 14박15일
3/23(월)~4/1(수)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9박10일 \$3,690 **조앤 한**
3/30(월)~4/11(토)
일본 맛여행 + 환상의 벚꽃축제 12박13일 **재키 조**
4/12(일)~4/18(토)
고국의 봄, 남해 맛 기행 6박7일 **재키 조**
4/12(일)~4/21(화)
고국의 봄, 남해 맛 기행 +제주도 9박10일
4/20(월)~4/28(화)
중국 실크로드 8박9일 \$3,490 **조앤 한**
4/26(일)~ 5/6(수)
시칠리 섬 + 몰타 10박11일 **재키 조**
5/24(일)~6/4(목)
알프스 파노라믹 투어 11박12일 **재키조**
6/14(일)~6/25(목)
아일랜드 & 스코틀랜드 11박12일 **재키조**

메모리얼데이 스페셜

성원에 감사합니다!!

캐나다 퀘벡, 몽트랑블랑, 천섬
천섬 크루즈/오저블케이즘/몽트랑블랑 곤돌라
마감 5/23(금)~5/26(일) **대형버스**

VIP 리무진 버스 뉴욕 1박2일
마감 5/25(일)~5/26(일) **대형버스**

8명이상 출발가능
뉴욕 1박2일 \$399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650
목 출발가능 6/19 출발가능 추석맞이 10/6 모집중!
나이아가라, 뉴욕 & 브루클린 3박4일
수 출발가능 6/11, 8/6 출발확정 \$899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월 출발가능 6/23 출발가능 \$1,350

당일투어 워싱턴 DC \$100
3명이상 출발가능 루레이동굴 \$125

서부4대캐년 5박6일
일요일 출발 \$990항공 불포함
미서부 일주 8박9일
일요일 출발 \$1,540항공 불포함
엘로스톤 3박4일 5월19일 부터
매주월,금 출발 \$950항공 불포함
캐나다 록키 5박6일
\$1,190항공 불포함
알래스카 6박7일
월요일 출발 \$1,650항공 불포함

코스타리카 연합투어 2명이상 출발가능
5박6일 \$1,400항공 불포함 **월요일 출발**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건진 샤넬백, 수행비서가 바꾼 정황... 김건희 “난 안 받았다”

비서가 다른 샤넬제품으로 2번 교환
각각 100만원·200만원 웃돈 지불
검찰, 일련번호 대조해 행방 찾아내
비서 불러 김 여사 받았나 확인할 듯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통일교 전직 고위 관계자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로 보냈다고 지목된 명품 가방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교환해간 정황을 확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최근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윤모(48)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제품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시점에 윤씨의 처제 이모씨가 구입한 제품의 일련번호를 확보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제품을 김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를 운영할 때부터 함께 일해온 수행비서 유모씨가 두 차례에 걸쳐 교환해 갔다는 것이다. 유씨는 교환할 때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웃돈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4~8월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특혜 등 통일교 이권 사업을 청탁하려 했다는 의심이다. 전씨는 당초 이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자택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도 선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에 유씨가 샤넬백을 교환한 정황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유씨에게 가방을 바꿔오라고 지시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교환할 때 지불한 300만원도 자신이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는 건진법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전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300만원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또 샤넬 가방을 유씨가 아니라 김 여사가 실제로 받았는지, 통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 타임라인

2024.12.17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치자금법 위반 긴급체포
12.19	...법원, 전씨 구속영장 청구 기각
12.27	...검찰, 윤모 전직 통일교 세계본부장 압수수색
2025.1.8	...검찰, 전씨 처남 압수수색(참고인)
1.9	...법원, 전씨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기각
1.10	...검찰, 전씨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4.20	...검찰, 전씨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소환
4.30	...검찰, 김건희 여사 대상으로 사저·사무실 등 압수수색(참고인)
5.3	...검찰, 전씨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소환 조사
5.17	...검찰, 전씨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소환 조사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에게 건넨 청탁용 선물의 의혹

검찰, ‘김건희 여사가 선물(천수삼) 잘 받았더라’ 문자 확보

김 여사 선물 전달 의혹 금품 (2022년 4~8월)
600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000만원 상당 샤넬 명품백
천수삼 농축차(통일교 계열사)

“목걸이·명품백 잃어버렸다”
“거짓 문자”

건진법사

“금품 받은 사실 자체 없다”

샤넬 매장서 다른 제품으로 교체

김 여사 수행비서

김 여사 측

자료: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 영장 및 중앙일보 취재

이창수·조상원 이례적 동반사의, 대선 전날까지만 근무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4차장〉

현재서 탄핵 기각된지 두달 만에
“탄핵에 따른 심적 고통 등 건강악화”
일각선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영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업무에 복귀한 지 2개월 만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탄핵에 따른 심적 고통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임을 사직 이유로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계엄 해제 이틀날인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했다. 현재는 3월 13일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지검장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사 3명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특정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는 점에 부담함을 느꼈고 건강도 악화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이) 사유조차 부당한 탄핵소추 이후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고통이 심했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이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고검은 최근 평검사 2명을 파견받아 최행관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3명의 검사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앞서 현재 역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지검장 등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휘 및 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 차장은 “(재수사는) 각자 자기 본분에 맞게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알가랄부할 생

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 퇴직할 예정이다. 현재 검사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최근 탄핵소추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안 검사는 부산지검 2차장검사였던 2023년 9월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으나, 현재는 지난해 5월 30일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5대 4의견으로 기각했다. 정진우·석경민 기자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5월 HOT 리스팅

매매

- 디씨 NW 건물 \$2.2M 그로서리 스토어 1층, 2, 3층 아파트
- 센터빌 타운하우스 \$60만불 방4+ 화장실3.5, 렌트 수익 \$2,900
- 레스톤 타운하우스 \$62만불 방3+ 화장실2.5, 렌트 수익 \$3,000
- 스태포드 타운하우스 \$42만불 방3+ 화장실3.5
-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만불 방3+ 화장실3.5, 호수부, 차고 2, 렌트 \$3,600

렌트

- 애쉬번 웨어하우스 \$4,800 3800sqft, 큰 오픈 스페이스, 화장실 2개, Loading dock
- 애쉬번 타운하우스 \$3,600 방3+ 화장실3,차고 2, 입주 6월
- 철틸리 타운하우스 \$3,400 방3+ 화장실3.5,차고 2, 입주 4월초
- 우드브리지 \$3,200 방3+ 화장실3.5, 차고 2, 입주 3월초
- 맥클린 로톤다 콘도 방2+ 화장실 2, 즉시 입주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헬렌 서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26일 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논의한다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상징
이재명 판결은 안전 채택 안해
“개별 재판에 의견표명 부적절”
대검 “법외공죄, 죄형법정주의 반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서울남부지법 김예영 부장판사)가 오는 26일 소집한 임시회의에 ‘재판 독립’ 관련 안건 2개를 상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판결에 대해선 “개별 재판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번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재판 독립 안건 채택은 ▶‘법 외공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위기감을 느낀 법관들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점점 더 거세어지는 정치공세를 보고, ‘사법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일선 법관들의 우려가 반영된 안건”이라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개 안건을 의장 상징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공개했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의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고,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이어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

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를 두 번째 안건으로 채택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이후 민주당과 법원 내부의 논란이 거세지자 임시회의를 연다고 9일 공고했다. 이후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2개 안건으로 압축했다. 법관대표회의는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며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제안하는 안건들이 상정됐다”고 했다.

하지만 법관대표회의는 보도자료와 별도로 배포한 법관용 내부 자료에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이라고 표현해 이 후보 상고심의 진행 속도 문제를 다룰 여지도 남겼다. 또 26일 회의 당일 법관 대표 9인이 안건 상정을 요구할 경우 현장에서 안건이 상정될 수도 있고, 논의 과정에서 수정안이 발의돼 통과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민주당이 판검사 처벌을 위해 형법에 법 외공죄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형사사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전국 검찰청에 공문으로 보냈다.

김정연·심석용 기자

민주당 ‘사법 개혁’ 법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요지	사법권 남용, 대선 개입 혐의 수사	
		● 국민적 요구	● 초유의 사법 탄압
법원 조직법 개정안	요지	대법관 수 30~100명으로 확대	
		● 대법관 귀족법관화	● 대법원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도
헌법 재판소법 개정안	요지	‘재판소원’ 허용, 사실상 ‘4심제’ 전환	
		● 권리구제 수단 실질화	● 재판소원 남발로 현재 마비 우려
공직 선거법 개정안	요지	허위사실 공표 적용 대상 ‘행위’ 삭제	
		● 정치의 사법화 방지	● 이재명 후보 방탄용

조희대 탄핵·대법관 증원 ‘사법부 흔들기’에 우려

법관 대표 ‘재판독립’ 상징 이유는
내부 “조용히 있던 법관들 적정 표출”
“삼권분립 원칙 정면 위배” 비판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의에 ‘재판 독립’을 주제로 2개 안건을 상정한 건 일련의 민주당발 사법부 압박에 대한 법관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채택된 안건 첫 번째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벌어진 일들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두 번째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공격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고 직후부터 “조희대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며 공격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30명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외공죄’ 판사처벌법(형법 개정안),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3분의 1 비(非)판검사 임명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부 공격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서울

고법이 7일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지만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유죄 다수의견에 선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 탄핵까지 거론하며, 14일 진상규명 청문회까지 열었다.

당초 지난 7일 법관대표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쪽도 이 후보 대법원 판결의 이례적 속도 등을 문제삼은 일부 진보 성향 법관들이었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법관들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서 “사법부가 과반 의석 의회 권력과 적이 됐다.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데 대한 유감 표명 및 재판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김예영 법관대표회의의 의장이 8일 이 안건으로 각급 법원 법관대표 126명에게 임시회 소집 여부를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기류가 달라졌다. 소집에 25명만 찬성하고 약 70명이 반대

했다. ‘외부 사법부 공격에 동조하느냐’란 반발이 컸다. 집행부가 투표를 하루 연장한 끝에 9일 소집 정족수(26명)를 채워 임시회를 열기로 하는 대선 안건은 법원별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정하기로 했고, 결국 20일 “재판 독립” 안건을 채택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그간 조용히 있던 법관들의 우려가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고법 판사는 “대법원장도 정치권 입맛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선 법관의 재판은 얼마나 우습게 생각할지 우려했는데, 다수 법관도 비슷하게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법 판사도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건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의장이 법관용 자료에서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표현한 것을 놓고 “일부 법관 대표들은 회의 당일 이 후보 상고심 속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김정연 기자

민주당 타깃, 국민의힘 아닌 사법부... 대선 후 손보기 예고

민주당 지도부, 지귀연에 연일 공세
선거기간 상대 후보 아닌 판사 직격
국민의힘 “입맛대로 사법부 재편”

더불어민주당은 20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때렸다. 대선 국면이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세가 상대 후보가 아닌 사법부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기표·김용민 의원이 릉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후 민주당은 지 부장판

사를 하루도 거리지 않고 도마에 올렸다.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판사가 어떻게 범복을 입고 지엄한 재판장에서 신상 발언을, 그것도 몇 시간 못 가 드러날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며 “이런 판사에게 역사적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전날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이 릉살롱 접대 의혹의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이 신빙성 논란을 빚자, 이번엔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는 지 부장판사의 반박을 문제삼은 것이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겨냥한 비난 및 압박과 동전의 양면처럼 전개되고 있다. 입법 공세는 지난 14일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통과를 기점으로 잠시 쉬는 중이지만 이후에도 ‘사법부 때리기’는 전방위로 전개됐다.

이 후보는 14~15일 지방 순회 유세에서 “내란 수괴뿐 아니라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16일에는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트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상대 당 후보가 아닌 사법부를 공격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건 민주당 밖에 선 기현상이다. 전직 의원은 “기존 정치 문법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지 판사가 윤석열 내란 수괴를 시간으로 계산해 풀어준 것은 범죄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대미문의 전원합의체를 9일 만에 파기환송하면서 대선에 정치 개입을 하지 않았느냐, 저희는 이 모든 게 연루돼 있다고 본

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 전직 의원은 “선거법 문제는 이재명 면소법 등으로 해결한다지만 나머지 재판 리스크를 털어내려면 조 대법원장 사퇴가 필수라는 게 민주당의 의식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이런 자극적인 의혹을 꺼낸 이유는 명백하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예상되면 판사를 숙청하고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심새롬 기자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703-259-5617, 410-241-2520

호프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TX)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관세 시한폭탄 D-48... 이 “서두르지 말자” 김 “당장 정상회담”

〈이재명〉

〈김문수〉

63

대선공약 검증

눈앞에 닥친 대미(對美) 관세협상에 대해 주요 대선 후보의 전략은 엇갈린다. 이태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둘러 협상을 타결할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을 펼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개최하겠다”며 속도전을 감주했다.

이 후보는 최근 TV 토론에서 “미국도 관세 협상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인다”며 “지금 부과한 관세를 100% 그대로 유지하긴 어려울 테고, 협상의 여지가 있을 거라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인터뷰에 미국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웠으나 자국 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깨닫고 전략을 수정했다”며 “상대가 거칠게 나올수록 냉정하고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둘 다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밝히지는 않았다.

반면 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다. 내가 트럼프와 가장 우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정상회담을 취임후 바로 개최해 7월8일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상 간 담판을 짓는 ‘톱다운’ 방식의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통상전문가는 “김문수 후보는 현 정부와 연속성을 고려해 협상을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집권 후 협상을 벌일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끝나는 7월8일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6월4



평택항의 수출용 차량 20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선적을 앞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당	정의당
이재명 기호 1	김문수 기호 2	신당 기호 3	이준석 기호 4
산업통상자원부 - G20, G7을 통한 주요국과 연대 강화 - 수출시장과 품목 다변화 - 미국과 관세협상 신중한 접근	-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 - 조선, LNG, 방산, 반도체, 원전 등 포괄적 투자협정 - 한미 정상회담 통한 속도전	- 이전 기업의 국내 '리쇼어링' 추진 - 국내판 러스트벨트 해소	

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한 달 남짓이다.

문제는 미국이 “선의(good faith)로 협상하지 않으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예 기간을 넘길 경우 4월2일 정한 상호관세(한국 25%)를 그대로 부과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이 준비한 카드를 제대로 전달하면서 원활한 협상 타결을 하려면 미국이 정한 시한을 가급적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버트 호프만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1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경제 규모가 크고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낮은 나라만이 (중국처럼) 강경 대응이 가능하다”며 “대다수 국가에게 미국과 맞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미 관세협상, 후보들 엇갈린 입장
이재명 “음예여자 현사여지” 시조

김문수 “트럼프와 신뢰 관계” 속도
이준석 “거칠수록 전략 대응” 냉정

미 정부, 7월8일 협상 데드라인 압박

트럼프 정부 “기간 넘기면 관세 25% 올릴 것”
전문가 “가급적 기한 지키며 협상”
일각선 “기간 늘려 더 면밀히 따져볼 것”

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버티는 전략’은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
오는 이유다.

하지만 일본·EU 등 대미 무역 흑자

국이 최근 협상 기조를 ‘조기 타결’ 대신 ‘신중 모드’로 전환한 것을 볼 때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한국은 새 정부에서 기존 한국 협상단이 대폭 바뀔 가능성이 높은 데다,

장관 인사청문회 등 거칠 경우 7월 타결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상호관세와 품목관세의 완전 철폐를 요청하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에 내줘야 할 것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상호관세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협상 기간을 늘려 미국의 요구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도 이날 “지금까지 외교적이고 신속한 접근 방식을 취해온 국가들이 올해를 길인지 의문을 품고 있다”

고 전했다

국제 무역 질서 변화를 반영하는 산업·통상 분야 공약과 관련 이재명 후보는 “수출시장이나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에선 ▶G20(주요 20개국)과 G7(주요 7개국)을 통한 글로벌 현안 적극 참여 등 주요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비서구권 신흥국) 협력, 유럽연합(EU)과의 실질적 협력 강화 등 외교영역 확대·다변화 정책을 내세웠다.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학
신허브 원장은 “보호무역주의 추세 아
래에 그나마 규범 중심의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
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방안이 마
중 비중을 줄이면서 경제관계를 더 넓
히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짚
었다. 그는 이어 ‘경제 영토’ 표현이 자
유무역협정(FTA) 효과를 설명하는
단어라는 데 주목하면서 “다만 국내
정치적 반발, 특히 이세명 후보 지지 기
반의 반발을 극복해야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직접적 대책을 내놓는 대신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중국·베트남으로 이전한 국내 기업 공장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되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공약에 올렸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
구원장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가
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
는 새로운 대외경제전략이 필요하다”
며 “미국에 대한 우리 입장, 중국과의
관계, 한·일, 한·미·일 관계를 어떻게
가려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원 기자, 박현영 경제선임기자

캐리어에 쌀 채워 귀국하는 일본 관광객… 한국쌀 수출도 급증

일본 쌀값 폭등, 한국산 경쟁력 생겨
“맛있다” 인식 확산, 수입량 증가세
‘해남 땅끝햇살’ 이어 하동쌀도 수출

“생각보다 간단해. 쌀을 가져가는 방법!” 한 일본인 여성이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영상의 제목이다. 한국에서 산 쌀 2kg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쌀을 사

인천공항에서 ‘동식물 수출·검역’ 서류를 작성하고 증명서를 받는 장면 등이 일본어 설명과 함께 담겼다.

이 영상은 20일 오후 기준 조회수가 12만 건에 육박했다. “이번 미션은 쌀을 사서 돌아가는 것” “쌀을 사서 돌아가려면 근육 트레이닝” 등 한국에 관광 온 일본인들이 SNS에 올린 쌀 구매 후기도 상당하다. 쌀은 여행용 캐리어 등에 담아 간다.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경남도 내 마트 7곳에서 판매된 쌀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 늘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쌀 매출은 전년 대비 10%가량 줄었는데 최근 쌀 판매가 늘어난 것은 일본인 관광객 등의 구매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인들에게 최근 한국 쌀이 인기다. 일본의 쌀값이 1년 사이에 두 배로

오르는 상황에서 한국 쌀이 ‘값도 싸고 맛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일본으로 쌀 수출도 이어지고 있다.

20일 경남 하동에서는 일본 쌀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지역 대표 브랜드 ‘하동섬진강쌀’로 이번 달에만 80t이 수출된다. 간사이(關西)지방에 160여 개 점포를 가진 현지 대형마트 ‘헤이와도(Heiwado)’를 통해 판매된다. 연말까지 200t을 추가로 수출할 계

획이다.

앞서 전남 해남과 강원 삼척에서도 일본에 쌀을 수출했다. 지난달부터 삼척에선 '삼척동자 맑은쌀' 20t, 해남에선 '땅콩햇살' 22t을 수출했다. 삼척 쌀은 올해 안에 40t 더 수출될 전망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도쿄의 한 마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땅콩햇살'은 첫 물량 2t이 열흘 만에 동나고 곧이어 수출된 10t도 전량 판매됐다. 강진에서도 오는 26일 일본에 수출할 쌀 200t이 선적될 예정이며 추가 수출 여부도 협의 중이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주택 매매 및 렌트	1610 Westmoreland Ct, McLean, VA SALE	\$1,999,900	맥클린 고등학교 옆 HQA 오피스, 홀스데이 하기 딱 좋은 집, 방 7, 화장실 5.5, 실용적인 집 구조, 맥클린 다문화용 도로 가능, 집 앞 버스정류장 등 교통 편리 NEW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COMING SOON	\$970,000	Woodbridge 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 에 있는 잘 생긴 싱글홈 4/20 마켓에 올라갈 예정 NEW
	9490 VA Center Blvd, Vienna, VA SOLD	\$501,000	복수 오피스 빌딩 리스팀 가격보다 높은 오피스 선택, 3주만에 세들먼트 완료 SELL
	1474 Hampton Hill Ct, McLean, VA SOLD	\$1.3M	다수의 오피스 빌딩 경쟁 시켜서 listing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세들먼트, 셀라바(아이오어) 해피 SELL
	12495 Cliff Drive, Herndon, VA SOLD	\$1.2M	마켓에 내 놓자마자 좋은 오피스 빌딩, 1/21/25 세들먼트 완료 SELL
사업체 매매	10** Salt Meadow, McLean SOLD	\$2.73M	한국에서 동영상으로 집을 보고 계약, Cash buyer, 1/21/25 세들먼트 완료 BUY
	델라샵(DC)	\$150K	DC 내 위치 좋은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운영하면서 투자기점,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에이전트 지원할 정도로 인정된 수입
	주소	기간	세입자
	페이팩스 지역 봄-여름 나을 집 렌트 리스팀 50여채 있음	4/1~7/31 입주 가능한 집	\$1,800-\$5,200 가격대 렌트 집 리스팀, 관심있는 분 연락 바람
	올 여름에 파견 나올 주재원 6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6월 말~8월 초 입주 희망	\$2,000 ~ \$5,500 가격대 렌트
3618 Cantrell, Fairfax, VA NEW	2년	크레딧 좋은 Non Korean 가족	
6406 Hawk View Ln, Alexandria, VA NEW	2년	크레딧 좋은 Non Korean 가족	
9411 Myra Dr, Great Falls, VA	3년	비교적 월 좋은 조건이지만, 주민족 에이전트로 오랜 거래 덕분에 수 많은 경쟁 상사가 물고 득템, 주인 맘, 에이전트의 적극권업 추천으로 로리 손님 뽑았다고 함, 역시 부동산도 사람이 하는 일, 주재원	
4658 Braddock Green Ct, Fairfax, VA	3년	3번째 신청자지만, 오랜 노하우로 득템, 주재원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3년	마켓에 내놓지 않고 형으로 보유하고 계약완료, 국제가구	
1042 Warbler Place, McLean, VA 2/14/2025 입주	3년	마켓에 올리지 않고 다음 세입자 바로 연결, 한국에서 영상보고 3년 렌트함, 주재원	



그 외 30여채 더 있음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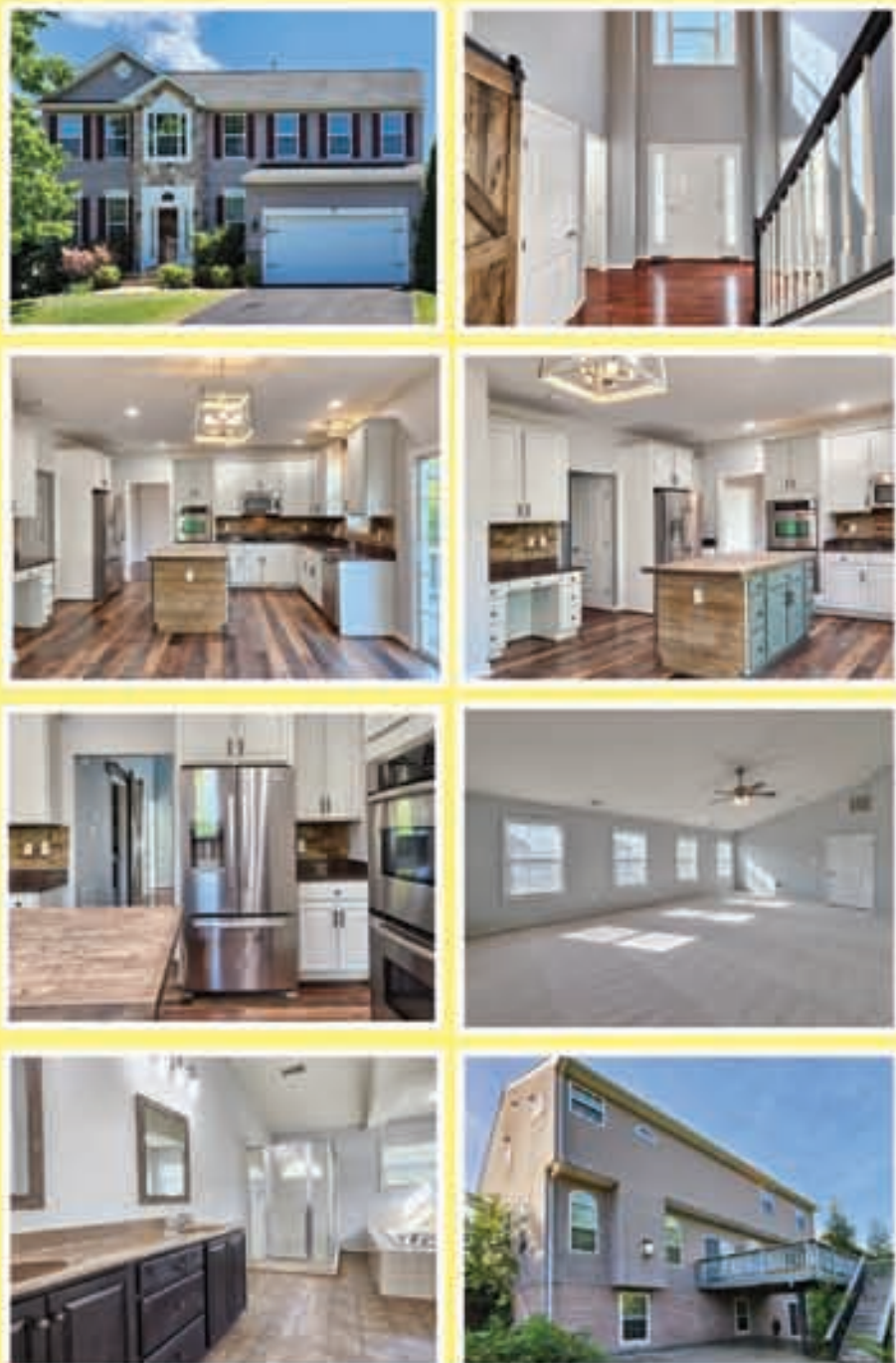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I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독점 **Stafford** **싱글홈**

완전히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주택, 2011년 지은 집,
방5, 화장5, 최고급 자재로 집 전체를 업그레이드함,
워크 아웃, 넓은 Deck, Stone Patio, 새 단지

\$719,900



독점 **Annandale** **타운홈**

집 전체 완전히 리모델링한 밝고 예쁜집,
부엌, 화장실 전체 나무마루 업데이트 함,
교통 편리,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단지

\$619,900



독점 **Annandale** **타운콘도**

업데이트하고 잘 관리한 타운하우스 스타일 콘도
계단없는 1층, 엔드 유닛, 1,400 sqft, 방2, 화장2
집 전체 나무마루, 업데이트한 부엌과 화장실

\$360,000



독점 **Springfield** **콘도**

방2, 화장1, 업데이트한 집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 1,
넓은 발코니, 밝고 환한 집

\$354,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우리말 바꾸기

‘의’가 없으면 어색할 때

‘의’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 준다. 그러면서 앞말이 뒷말에 대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앞말과 뒷말이 어떤 관계인지 등을 보여 준다. ‘예술의 아름다움’에선 ‘예술이’ ‘아름다움’의 주체라는 사실을, ‘도로의 일부’에선 ‘도로’와 ‘일부’가 전체와 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런데 ‘도로의 일부’에선 ‘의’를 생략할 수 있지만, ‘예술의 아름다움’에선 ‘의’를 생략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 ‘의’를 빼도 되는지를 설명하기는 아주 어렵다. ‘예술의 아름다움’은 ‘예술이 아름답다’는 말인데, 이런 형태에선 ‘의’를 생각하면 앞말과 뒷말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처럼 ‘의’의 앞뒤가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일 때는 ‘의’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하면 ‘의’가 ‘을’을 뜻할 때는 ‘의’가 쉽게 생략된다. 예를 들어 ‘학문의 연구’에서 ‘의’는 ‘을’을 뜻한다. 이때는 ‘의’가 없는 ‘학문 연구’도 어색하지 않다. ‘목적의 달성’ ‘문제의 해결’에서도 ‘의’를 빼 수 있다. ‘철수의 의자’처럼 ‘의’가 소유 관계, ‘도로의 일부’처럼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나타낼 때도 ‘의’는 생략된다. 이 밖에는 ‘의’를 생략할 때 조심해야 한다. 신문 기사에서 흔히 보이는 다음 문장도 ‘의’가 없으면 안 된다. “그는 문에서 위조, 허위 보고 등 혐의를 기소됐다.” 이 문장은 ‘등이 혐의’를 꾸미는 구조인데, ‘의’가 있어야 꾸미는 관계가 명확해진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세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니케의 저울

한국의 사법 논쟁, 미국을 묻다



김한신
변호사

다. 사법이 정치적 저항의 기폭제가 된 역사적 순간이다.

이로 인해 독립 이후 미국은 배심원 제도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며 시민 참여형 사법 구조를 확고히 다지게 된다.

미국 사법 제도는 이처럼 '사실'과 '법리'를 분리해 다루는 구조다. 1심 재판에서 배심원이 사실 관계를 확정하면,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증거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직 1심에서 법리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법적 오류는 없었는지만을 엄격하게 검토한다.

시민이 사실 판단을, 판사가 법리 판단을 담당하는 이 구조는 미국 사법의 근간을 이루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배심원의 판단이 때로는 감정에 치우치거나 대중 심리에 휘둘려 논란을 낳기도 한다. 이에 대한 보완 장치로, 미국 법원은 극히 드물지만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Judgment as a matter of law 또는 Judg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을 부여하고 있다.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도저히 내릴 수 없는 결론’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다.

시민의 집단지성을 신뢰하지만, 그 한계를 제도적으로 견제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한국과의 또 다른 큰 차이는 '이중(Dual) 사법 체계', 즉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이 병존한다는 점이다. 연방 헌법이나 연방법이 적용되는 사건, 또는 여러 주(州) 간 분쟁 등은 연방 법원의 관할이며, 대부분의 민형사 사건은 각 주 법원이 담당한다.

연방 법원은 크게 지방법원(District Court), 순회항소법원(Circuit Court), 대법원(Supreme Court)의 3심 구조로 이루어진다.

지방법원이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는 1심이고, 순회형소법원과 대법원은 법리만을 심리한다. ‘Circuit’이라는 명칭은 과거 판사들이 말을 타고 관할 지역을 순회하며 재판했던 전통에서 유래했다. 사법 제도는 정치 제도나 사회 규범처럼 그 시대의 가치와 철학을 담는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나 사실·법리 분리 구조는 시민 참여와 권력 견제를 중시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산물이다.

하지만 어떤 시스템도 완벽할 수는 없다. 배심원 집단지성의 오판 가능성, 판사의 권위적 개입 우려, 복잡한 이중 시스템으로 인한 혼란 등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상존한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불안전함을 인정하고, “과연 우리 사회에 최적의 사법 시스템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개선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완벽한 정의’는 이상에 가깝지만, ‘더 나은 사법’을 향한 성찰과 노력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이아침에

노라, 너는 지금 어디에



이리나
수필가

한 오십을 바라보는 그녀에겐 큰 충격이었다. 일 년 동안의 이혼 소송에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우울증과 술에 빠졌다.

보다 못한 매니저가 6개월의 병가를 주었지만, 재출근 후 일주일 만에 사표를 냈다. 그 후로 노라의 연락은 끊어졌다.

오랜만에 노라가 일했던 오피스에 들어서 일을 보고 차로 향했다. 저쪽에서 어떤 피죄죄한 옷을 입은 뚱뚱한 여자가 환히 웃으며 걸어왔다. 검게 색어가는 누런 이가 햇빛에 반짝였다.

여기저기 색깔이 벗겨진 낡은 갈색 선글라스
너머로 90도가 넘는 이 더운 대낮에 행여 바람이

라도 들어갈까 봐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얼굴엔
검버섯이 잔뜩 핀 여자. 한눈에 봐도 노라였다.

“리나”라고 부르면서 다가온 그녀는 반갑게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았다. 무심결에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눈을 꼭 감았다. 간단한 안부 인사를 묻고, 우리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헤어졌다.

잊히지 않는 죽음을 살아가는 노래의 뒷모습을 봤다. 비틀비틀 걸어가는 노래를 보며 고작 내가 꺼낸 말은 “안 더운가?”였다. 또, ‘이 웃은 한바탕에선 냄새가 가지지 않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만함에 입안이 씹쓸해졌다. 그토록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던 그 여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상하게 채워주던 그 여자, 위트가 넘치던 내가 알던 노래는 어디로 갔을까.

문득 고천득의 '인연'이 떠오른다. 과거는 추억으로 새기고 마지막은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춘천의 소양강에는 못 가지만 대신 주마 바치에나 가야겠다. 모든 것을 품은 아름다운 바다를 보련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네까짓 게”... 인격 모독이 식모살이 고충보다 더 아팠다

안혜리의 인생

논설위원



유퀴즈, 사기였네.

최근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나와 화제를 모은 임정열(64) 영설계에프앤씨 전무를 지난 8일 만난 후 든 생각이었다. 방송 속 임 전무는 우유 배달과 가사도우미 등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다 중년에 접어들어 어느 날 “가난을 탈출해 두 아이의 대학·발레 공부 시키려면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에 자격증에 도전, 공대 나온 젊은 사람도 따기 어렵다는 곡악 난도로 악명높은 ‘기술사’를 50세 넘어 돌이나 탄 인물이다. 젊을 땐 다음 날 끼니 걱정하는 육체노동자였지만, 지금은 정년 없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고도 역대 연봉 받는 전문가가 됐다.

임 전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첫 아이 출산 직후 남편이 회사를 관둬 고된 새벽 우유 배달을 했고, 남편의 재취업과 본인의 피아노 교습소 운영 등으로 겨우 먹고살 만하다고 안도할 즈음 IMF 외환위기를 맞아 신혼 초보다 더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 무릎에 피딱지가 앉을 만큼 기어다니며 입주 청소했던 혹독한 과거는 방송 그대로 전부 사실이다.

고작 3개월 준비하고 공인중개사 1, 2차 시험을 동시 합격했다거나(2006), 이 과정에서 소방 분야에 관심을 갖게 돼 준비 1년 만에 소방설비기 계기사와 전기기사 자격증을 딴 쌍 기사가 되고(2007), 자격 요건(기사 경력 2년) 채운 뒤 소방시설관리사에 합격(2011)해 연봉을 두 배 올린 것도 사실이다. 또 갠년기 증상으로 펜 잡기조차 힘든 와중에 눈 닿는 곳마다 책을 찢어 붙여가며 독하게 공부해 시험 준비 1년 만에 소방기술사에 최고령 합격(2014), 대표 부탁을 받아 건축기계설비기술사(2017)까지 따 전무로 승진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사기라고 한 건, 정작 임 전무 인생을 관통하는 큰 줄기를 생략한 거 같아서다. 나 이 먹고 갑자기 각성해 기술사가 된 게 아니었다. 식모살이에 인격적 모독이 일상인 어린 시절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그렇게 학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힘을 키워 인생 반전을 이룰 수 있었다. 임 전무 시각에서 그의 인생을 정리했다.

“보여줬다 40년 만에”

아버지는 학교 근처도 못 간 농부였지만, 늘 한문책 쌓아두고 읽을 만큼 배움이 깊었다. 비참한 머리 덕분에 고향 집 근처 강원도 신철원에서 수만 평의 정부 개간사업을 따냈는데, 끝없이 들어가는 돈을 감당 못 하고 마무리 직전 스스로 생을 놓아버렸다.

고작 열네 살(중3)이던 1975년,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중 1, 2 때 받은 전교 1등 장학금을

통장에 넣곤 “막내 대단하다. 이거로 꼭 대학 보내주마”했던 아버지가 떠나자 사랑받던 막내딸은 한순간 천덕꾸러기가 됐다. 언니 오빠들은 모여 앉아 대놓고 “저 계집애 왜 낳아서”라고 했다. 집을 날린 터라 어머니는 오빠가 모셔갔고, 난 1시간 떨어진 김화에서 양장점 하던 큰 언니 집에가 식모살이 같은 더부살이를 했다. 새벽에 일어나 쌀 일러 밥 지어놓고 학교 다녀오면 조카 둘 둘 보고, 양장점 시다(직원)들이 남긴 산더미 같은 설거지하고, 물 길어와 빨래했다. 힘들어도 쫓겨날까 봐 언니 앞에서 울 수조차 없었다. 그야말로 현실판 애순이(넷플릭스 ‘폭삭 속았수다’ 주인공)였다. 학교는 멀고, 그마저도 집안일 하느라 빠지기 일쑤였는데 공부는 잘했다. 인문계 가졌다니, 다들 펄펄 뛰었다. “대학 보내줄 사람 없으니 졸업장이나 따.” 그 시절 여자로는 드물게 공고(김화공고 전자과) 나온 배경이다. 전교 1등이어도 재미가 없었다. 그런데 ‘전자계산기’ 수업 때 “이게 컴퓨터다. 앞으로는 은행 등에서 주판 아니라 컴퓨터를 쓸 것”이라는 말에 꽃혔다. 당시 전자계산학과 있던 광운대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큰 오빠한테 흠씬 두드려 맞았다. “졸업하면 아무한테나 시집 가.” 오기가 생겼다. 속으로 되뇌었다. “난 절대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 나 무시하는 당신들한테 언제가 보여줄 거야.”

교회 어린이집 교사 하며 3년간 악착같이 돈 모아 상명대에 갔다. “좋아하는 공부 시켜주겠다”던 남편이 첫 아이 출산 후 덜컥 대기업을 관두는 바람에 졸업 대신 애 들쳐업고 새벽 우유 배달을 했다. 다행히 남편은 재취업, 난 백석예술대 나와 피아노 교습소 차려 형편이 좀 피는가 싶더니 IMF가 왔다. 남편 회사는 사라졌고, 확장한 교습소 빚 갚으려 전에 화장품 가게 하며 마련한 일산 아파트를 팔았다. 그렇게 또 우유 배달, 청소나 나섰다. 2014년, 국가 공인 최상위 자격증인 소방기술사에 합격했을 때 벅찼다. 40년 만에 드디어 보여줄 수 있어서.

학벌 아닌 진짜 공부

“네까짓 게.”

지금도 이 말이 제일 싫다. 어릴 적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받기는커녕 주위 사람들의 이런 인격적 모독이 식모살이 고충보다 더 아팠다. 돌이켜보니,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상대방 잘못대로 나를 낮춰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할 수 있었던 데엔 책이 있었다.

아버지 영향인지, 원래 책을 좋아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남의 머리에 든 지식을 내 거로만 들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며 “땅 물려주기보다 땅 팔아 학문을 쌓아줘야(애들이) 평생 살아간다”고 했다. 그렇게 서울에서 공부한 오빠들이 보내온 ‘소년중앙’ ‘여개동무’ 같은 잡지 속 과학이나 역사, 히말라야 얘기 등을 읽고 또 읽었다. 중학교 땐 학교 도서관이나 친구 집에서 셰익스피어와 소공녀, 소공자, 플란다스의 개 등 소년소녀 문학전집을 열심히 빌려 봤다.

다지기 싫은 공고를 버틴 것도 일본 전국시대

드라마보다 더 파란만장한 삶
천덕꾸러기가 전문가로 성장
문학 주인공이 자존감 지켜줘
한계 알되 두드리면 길 열려



지난 8일 소방 분야 전문가인 임정열 전무를 만났다. 고난의 연속이던 인생을 반전시킨 데는 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장진영 기자

를 다룬 야마오카 소하치의 대하소설 『대망』과 박경리의 『토지』, 펄벅의 『대지』, 그리고 다양한 프랑스·독일 문학 덕분이었다. 특히 『대망』과 『토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지만 강인하게 성장해 크게 성공하는 인물이 주인공인데, 어쩌면 이들의 영웅 서사를 나와 동일시하며 혹독한 시절을 버텼는지 모른다.

서희(『토지』 주인공)처럼 돈 많이 벌고 고향 집과 땅을 되찾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아버지 목숨과 바꾼 땅은 개밭 마무리 뒤 아버지한테 돈 빌려줬던 큰 언니네가 가져갔고, 집은 되찾지 못했다. 하지만 평생 공부해서 하나도 어렵다는 기술사를 돌이나 탄 나야말로 아버지 뜻을 이은 딸이라고 스스로 칭찬하고 싶다.

53세 늦은 나이에 기술 자격증의 종착역인 소방기술사 시험을 치를 때 두 번 떨어지고도 결국 붙은 건, 물론 모든 걸 건 독한 공부 덕분이다. 또 젊은 사람보다 기억력은 떨어져도 소방설비 기계·전기 기사(2007), 소방시설 관리사(2011) 현장 경

험 덕에 논리적으로 이해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큰애 들쳐업고 새벽 우유 배달할 만큼 인생이 고되고 힘들수록 더 공부의 끈을 놓지 않으려 책을 가까이 한 게 컸다. 외워야 할 수험서가 가득해도 서양사나 아라비아 역사, 동북아 역사책, 『로마인 이야기』 등을 보며 머리를 식혔다. 책이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자존감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지금도 초한지·삼국지를 읽고, 혼자 우주물리학 공부를 한다.

커넥팅 닷(Connecting Dots)

남들 꺼리는 허드렛일에 피아노·화장품·부동산·소방... 맞닥뜨리는 대로 계획 없이 산 줄 알았는데, 여러 점(dot)이 나를 소방으로 이끌었다. 학위 갈등으로 탄 가정학과 독학사(2003) 덕분에 기사 응시가 가능했고, 장롱 먼하 공인중개사 덕분에 소방의 세계를 알았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인생의 다양한 경험이 의미 있게 연결된다는 스티브 잡스 말이 맞았다.

어릴 적 꿈은 성악가였다. 나만의 뒷동산 음악회를 열고, 어린이집 교사하며 품음을 독학했다. 딱 석 달 레슨 받고 치른 서울음대 성악과 입시에 좌절한 후엔 프랑스로 음악 유학 간다며 불어로 틀었다. 서른 넘어 2년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서야 환상을 켰다. 조수미급 재능인 줄 알았는데 취미 수준 실력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한계 인정하기, 다른 말로 만족하기다. 남들은 나더러 한계 넘는 삶이라 할지 몰라도 난 한계를 인정해야 인생을 직시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사람이 김연아가 될 수 없는 데 “능력은 무한”하다며 피겨 하라고 부추기면 불필요한 무한 경쟁으로 치달아, 만족과 멀어진다.

사실 ‘감사만(감사·사랑·만족)’을 인생 좌우명 삼은 나 역시 만족이 제일 어렵다. 소방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에 소방시설관리사까지 가진 이는 드물다. “기술사 하나 더 따면 유일무이한 존재”라며 부추기는 사람이 꽤 있었다. 잠시 흔들리다, 교만이지 싶어 포기했다. ‘기술사 컬렉터’가 아니라 업무에 필요해서 둘을 딴 건데, “너보다 잘났다”는 계급장 달고 싶은 욕망에 중심을 잃을 뻔했다.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소방을 직업 삼아서 감사하다. 화재 시 인명을 안전하게 대비시키는 경로를 설계하는 등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다. 지난 3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소방기술 전수하러 간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시 한번 감사했다. 어릴 적 마군이 던져주는 갸름·조콜릿 주워 먹으며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젠 해외에 기술 전해주고 나라는 전문가가 됐으니 하는 말이다.

지금은 절대적 빈곤의 시대는 아니다.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에 방황한다. 그런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비단 지금뿐 아니라 어느 시대에서나 오를 수 없는 사다리엔 있었다. 하지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찾아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면 항상 길이 열렸다. 가난·학벌·나이를 극복한 나처럼.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시 설

‘AI 허브’ 꿈 키우는 대만, 우리는 어떤 대책 있나

국가 대항전으로 번지는 인공지능(AI) 경쟁에서 한국이 변방으로 밀려날 위기다.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9일 대만을 ‘AI 허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대만에 첫 번째 거대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신사옥 건립과 함께 AI 칩 설계와 양자 컴퓨팅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을 AI 생태계 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은 위협적이다. 슈퍼컴퓨터 구축에는 엔비디아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 아이폰 등을 만드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생산 기업 폭스콘,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가 참여한다.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반도체 제작부터 AI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도 모두 현지화해 대만을 자생적인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 그저 장밋빛 포부만은 아니다.

대만은 최첨단 부품 설계와 생산까지 독자적인 AI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AI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세계 1위인 미디어텍과 AI 서버 시장을 장악한 콰타-위스트론도 모두 대만 기업이다. “150개 대만 기업이 이룬 생태계가 없었다면 엔비디아의 설계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황 CEO의 언급이 빈말이 아니다.

엔비디아, 대만에 AI 슈퍼컴퓨터 구축 청사진
범국가 차원의 구체적 AI 생태계 로드맵 절실

대만의 강력한 출사표에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AI 경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일부 메모리반도체 기술력만 앞설 뿐, 설계나 소프트웨어·패키징 등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과 데이터센터 및 전력 공급 등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AI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납품 하청업체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도 기우가 아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글로벌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전략은 어디서도 찾기 힘들다.

대선주자들의 AI 관련 공약은 구호만 있을 뿐 구체적인 그림은 없다. 보여주기 식으로 막대한 재원 투입만 언급할 뿐, 산업 전략 및 에너지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제대로 된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는 한국 경제에 AI 산업과 같은 신성장 동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가 경쟁력과 안보 강화 등을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선택지다. 경쟁국이 쟁점을 하는 만큼 시간이 없다.

기업이 혁신 및 투자와 연구개발(R&D), 인재 양성과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고,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구축 등 인프라 확보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포함한 범국가 차원의 AI 생태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나라를 이끌겠다는 지도자가 할 일은 이런 것이다.

정치적 상상력 빈곤 드러낸 ‘배우자 TV토론’ 제안

국민의힘이 어제(20일) 대선후보 배우자의 TV토론을 제안했다가 경쟁 후보들로부터 면박만 당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불쑥 꺼낸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생중계 토론은 뜬금없는 제안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김 후보가 이 후보에게 열세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김 여사를 공격하려는 속내로 보이지만, 전례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황당한 카드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실상 공인이라는 점, 잇따르는 배우자 관련 구설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크다는 점은 인정하나 배우자 TV토론은 이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배우자끼리 토론을 한다고 해서 사전에 검증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문재인·윤석열 정부 내내 임명하지 않았던 특별감찰관 제도처럼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의 일탈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조직의 정상화로 풀어야 한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배우자 토론은 정책에 맞춰야 할 대선의 초점을 가족의 사생활 논란이나 이미지 경쟁으로 흐릴 위험이 있다. 더욱이 김건희 여사 문제로 민심을 잃었던 국민의힘이 배우자 검증을 요구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차라리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김 여사에게 성실하게 수사받으라고 요구하는 것

이 유권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알팍한 카드로 국민의힘이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는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두고 어정쩡한 태도로 실기한 김문수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첫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반전을 이루지 못했다. 보수 빅텐트는 고사하고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인사들조차 품지 못한다. 경선 패배 직후 미국에 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특사단까지 보냈으나 고작 얻은 것은 “민주당과 손잡을 일 없다”는 말과 페이스북 파란 넥타이 프로필 사진 교체뿐이다.

한동훈 전 대표조차 어제 SNS에 “지금 국민께서는 대통령 배우자가 아주 조용히 지내길 바라십니다”라며 후보자 토론회 제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도대체 당내 의견 수렴이라도 제대로 거쳤는지 의문이다. 보수 세력을 결합한다면 배우자가 없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또 어떤 건가.

열세가 뚜렷한 판세 속에서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자에게 대안을 보여줘야 하나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입법·행정·사법에 걸친 민주당의 권력 독점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배우자 토론 같은 한심한 아이디어만 내놓고 있다.

남은 2주 만이라도 얄은 수에 집착하지 말고 보수 혁신에 전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작은 희망이라도 생길 것이다.

이재명의 친노조, 어디까지 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련했다. 충실하진 않았다. 첫 TV토론을 본 소감이다. 몇 대목은 튀었는데, 그중 하나가 노란봉투법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인 듯 말하던 그는 이 대목에선 “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화는 이랬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되면 또 밀어붙일 것인가.”

▶이 후보=“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법안이다. 당연히 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가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긴 설명을 요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안엔 네 가지 쟁점이 있다. ①근로자·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②쟁의 행위 대상을 늘리며(근로조건의 결정→근로조건) ③불법행위도 면책하는 등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④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배제한다. 일방적으로 노(勞)의 편을 들었다. 다수가 “이런 내용으로 통과, 시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송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차진아 고려대 교수)고 본다.

개중 ④번이 그나마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을 인정했는가’ 논란이 있었다. 2023년 대법원(제3부, 주심 대법관 노정화)이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고하면서다. 당시 “사용자가 개별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이 곧바로 부인했다. “귀책사유를 달리하는 공동불법행위자 간 책임비율만 달리 인정한 것으로, 기존 판례를 적용한 것이어서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소부에서 판결한 것”이란 취지였다. 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사용자 측에서 제출할 자료가 늘 순 있었으나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물린 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후보의 ‘대법원 인정’ 주장은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극단적’이다.

사실 노조의 불법행위에 기업이 맞설 수단은 그나마 손해배상 청구 정도다. 어떤 기업인은 “유일한 무기”라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 기업을 상대로 취하하란 식으로 압박하곤 했는데,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무기를 빼앗아 그럴 필요조차 없게 한다. 어디서 본 듯하지 않나.

이 후보의 정년 연장 언급도 인상적이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를 지적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는 “젊은 세대가 많이 동의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청년이 늘어나는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가 “정년을 연장하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가”라고 하자 이재명 후보는 “너무 극단적이다”고 했다.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경합은 분명히 있다. 고령자 1인당 인건비 규모가 신규 채용 인력 1인당 비용보다 훨씬 크면 정년 연장의 직격탄은 청년 고용

노란봉투법·정년연장 강행 의지
사실상 노조 위한 것… 성장 되겠나
과거 대통령들 결국 노조와 갈라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윤희숙의 『정책의 배신』). 윤희숙은 “정년 연장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현재 노조의 주력 연령대가 정년을 앞둔 것과 관련이 깊을 것”이라고 봤는데 타당하다.

이재명 후보는 ‘실용 보수’라고도, “나는 좌파·우파 아닌 양파”라고도 한다. 어떤 부분에선 그럴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유연하게 할 조짐이 보인다고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그가 어떤 포장을 하든 본질적으로 그대로일 듯한 부분도 보이는데 사법부마저 초토화하겠다는 무서운 생존 본능, 그리고 그것과 정치적으로 연결된 것이겠지만 친노조다. 그의 입으로 민주노총에 “수고 많았고, 노력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토론에서도 여신했다. 공국의 질문은 그러면 약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겠느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결국 노조와 반목했다.

중앙SUNDAY 편집국장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li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전담고객서비스팀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경제신문,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에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성균관대학교

북미주 연합 동문회 정기총회



존경하는 성균인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분야를 빛내며 모교의 이름을 드높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혼자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균인의 발걸음에 ‘우리 함께’라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정기총회는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우리 함께, 더 큰 꿈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가 더해질 때,
우리는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임에 꼭 함께 해 주셔서,

성균인의 뜨거운 열기를 한자리에서 나눌 수 있길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워싱턴 D.C.에서 만나요!

일시 2025년 6월 6일(금) ~ 6월 8일(일) 2박 3일

장소 The Westin Washington Dulles Airport Hotel

2520 Wasser Terrace, Herndon, VA 20171

T (703) 793-3366 / F (703) 793-3866 (Westinwashingtondulles.com)

대회장: 김 영운 (240) 620-6775

준비위원장: 김 대영 (301) 922-8806

이 호성 대외팀장 / 김 인숙 대외팀장 / 서 영혜 총무팀장 / 김 영희 의전팀장

김 현구 IT 팀장 / 이 정은 재무팀장 / 전 용진 홍보팀장 / 한 연성 홍보팀장

주최: 북미주 연합 동문회 총회장: 최 봉희 / 이사장: 유 시완

주관: 워싱턴지역 동문회 회장: 김 인숙

후원: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 Implant 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 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병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 303-4556 / f: (703) 303-0988
f: (703) 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피부 노화 늦추는 법

피부 관리 기준도 ‘저속 노화’ 트렌드에 맞춰 바뀌고 있다. 저속 노화는 말 그대로 천천히 늙는 것을 뜻한다. 노화 자체를 거부하던 안티에이징(Anti-Aging)과는 달리 노화를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속도를 늦추는 데 집중한다. 갈수록 줄어드는 보습 인자를 채워 넣고, 세안 시 가해지는 자극을 줄여 피부 장벽을 지키는 식이다. 일상 속 사소한 습관만 잘 챙겨도 피부 노화의 시계를 늦출 수 있다.

▶선크림은 3시간마다 덧바라야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다. 자외선에 지속해 노출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게 된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첫걸음은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바르기다.

선크림을 살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았는 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살필 부분은 자외선A 차단 등급인 PA와 자외선B 차단 지수인 SPF다. PA는 +의 개수가 많을수록, SPF는 숫자가 클수록 자외선 차단 능력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무조건 차단 등급과 지수가 높은 제품을 골라야 하는 건 아니다.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한 만큼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실내에 머물거나 산책처럼 비교적 짧은 야외 활동을 할 때는 SPF15, PA+ 이상만 해도 적당하다.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된다면 SPF 50+, PA+++ 또는 PA++++ 제품이 적합하다.

선크림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바르는 방법에도 신경 쓰는 것이 좋다. 선크림은 외출 30분 전에 고르게 펴 바르고 3~4시간 간격으로 덧바른다. 정해진 간격대로 덧바르기가 어렵다면 처음 바를



“선크림은 외출 30분 전에 바르고 약산성 클렌저로 피부 장벽 보호 천연 보습 인자도 보충해줘야

“때 한 번 더 겹쳐 바르는 방법을 추천한다. 특히 스틱이나 쿠션형 제품을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약할 수 있어 여러 번 겹쳐 바르거나 두드려 준다.

보스피부과의원 김홍석 원장은 “자외선 탓에 햇빛을 무조건 피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건 맞지만 햇빛을 아예 차단하면 비타민D 부족이나 우울감을 초래할 수 있어 적당한 노출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야외 활동을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처럼 자외선이 약해지는 시간대에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자외선 못지않은 피부의 적은 대기 오염 물질이다.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 자극

물질은 피부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나가야 한다면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피부를 보호한다.

피부의 수분 유지도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요소다. 피부가 건조해질수록 탄력 저하, 주름 생성 등 노화 현상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어서다. 피부의 수분 관리의 올바른 클렌징으로부터 시작한다. 세안할 때 ‘쁘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이중, 삼중으로 세게 피부를 씻어내는 일은 금물이다. 피부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고 피부 장벽을 손상해 수분 손실을 촉진할



수 있다. 대신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약산성 클렌저와 미온수로 부드럽게 얼굴을 닦아내도록 한다.

세안 후에는 즉시 보습제를 발라 피부의 수분을 유지한다. 이때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롤 등 보습 인자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면 좋다. 나이가 들수록 보습 인자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히알루론산은 흡습성이 뛰어나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며 글리세롤도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준다. 특히 천연 보습 인자인 글리세롤은 피부 각질이 자연스럽게 탈락하도록 돕고 새로운 세포 생성을 촉진해 피부 표면이 매끄럽게 유지되게 하는 역할도 맡는다.

▶피부 세포 재생 시간 맞춰 속면
만약 보습제를 써도 건조함이 유지된다면 피부과 시술을 고려할 만하다. 대표적인 게 스킨부스터 시술이다. 스킨부스터는 히알루론산 같은 보습 성분을 피부에 직접 주입해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든다. 일례로 멀츠 에스텍스 코리아의 벨로테로 리바이브 스킨부스터는 피부 보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글리세롤과 히알루론산을 모두 공급해 피부 건강을 개선한다.

아울러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같은 기본적인 생활습관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브로콜리처럼 활성 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 식품을 챙겨 먹고, 7~8시간 깊이 자도록 한다.

김 원장은 “특히 피부 세포가 활발하게 재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숙면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부 노화는 주름이나 탄력 저하처럼 표면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다”며 “20대 중반부터 수분 유지력과 콜라겐 생성이 감소하기 시작하니 이른 시점부터 관리에 나서길 권한다”고 했다.

하지수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The Law Offices of Ronald S. Canter, LLC
로날드 켄터 로펌 신지상 변호사
무료상담 (상법/상해/채무&채권 소송)
본 로펌의 변호사들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디씨,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변호사 자격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영어/스페인어 상담 가능
301.545.2726
2200 Research Blvd., Suite 560, Rockville, MD 20850
jshin@roncantlerllc.com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 Ace Acupuncture**
571-438-4644
-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ANTHE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1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폐암 4기 환자 암세포 완전히 사라져... ‘레이저티닙’ 주목

완전 관해 사례 보고한 한국 폐암 표적항암제

한국에서 발생하는 폐암의 85%는 특정 유전자 변이를 타깃으로 표적항암제 치료가 가능한 비소세포폐암이다. 한국인에서 가장 많은 비소세포폐암 유전자 돌연변이는 EGFR이다. 폐암은 암세포의 특성에 따라 치료 전략이 달라진다. EGFR 변이 폐암은 암세포의 성장·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 3세대 EGFR 표적항암제로 치료한다. 최근 한국 제약사에서 개발한 3세대 EGFR 폐암 표적항암제인 레이저티닙(상품명 렉라자)가 병리학적 완전 관해를 달성했다. 항암·방사선 치료 후 시행한 조직 검사에서 암세포가 더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에서도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폐암은 담배를 피워도, 그러지 않아도 발병한다. EGFR 변이 폐암이 그렇다. 흡연이 강력한 폐암 발병 위험 인자인 것은 맞다. 그런데 EGFR 변이 폐암은 흡연력이 없는 비흡연자에게도 생긴다. 여성 비흡연 폐암 환자의 30%가량은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이라는 보고도 있다. 대기오염, 미세먼지, 라돈이나 석면 노출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담배 안 피우는 비흡연 여성도 폐암 생겨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EGFR 변이 폐암은 진행성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개 초기에서 말기로 갈수록 폐에 생긴 암 덩어리가 커지면서 기침·가래·숨참·객혈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폐암이 뇌·뼈 등으로 전이되면서 두통, 언어 장애, 감각 이상, 골절 같은 증상을 겪기도 한다. 한국산 폐암 표적항암제로 병리학적 완전 관해를 달성한 환자도 그쳤다. 말이 어눌한 언어 장애 증상이 일주일 동안 지속

해 병원을 찾았다가 돌연 뇌전이 폐암 4기로 진단받았다. 추가로 진행한 조직 검사에서 치료 반응률이 낮고 예후도 좋지 않은 변이로 분류되는 EGFR 2차 변이(L858R)까지 발견됐다.

그를 치료한 영남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안준홍 교수는 “뇌 전이, L858R 등에도 효과를 보이는 레이저티닙으로 치료를 시작했는데 투약 6개월 만에 시행한 조직 검사에서 종양이 보이지 않았다”며 “현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발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산 폐암 치

료제로 병리학적 완전 관해를 이룬 첫 사례다.

병리학적 완전 관해로 암세포가 증식하지 않는 무진행 생존 기간(PFS)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표적항암제에 내성이 생기면 암세포가 다시 증식하면서 암이 재발한다. EGFR 변이 폐암을 치료할 때 레이저티닙 등 강력한 항종양 효과를 가진 3세대 EGFR 표적항암제에 주목하는 이유다.

한국산 3세대 EGFR 표적항암제 레이저티닙은 L858R이나 T790M과 같은 EGFR 2차 변이에도 일관성 있는 치료 반응률을 보인다. 뇌 전이 폐암의 치료 효과도 우수하다. EGFR 변이 폐암은 암세포가 뇌로 잘 전이된다.

폐암으로 처음 진단받을 당시 뇌 전이를 동반할 확률이 20% 이상이다. 뇌 전이가 없더라도 3년 정도 지나면 절반 정도는 뇌 전이를 겪는다. 뇌 전이로 두통·구토 등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면 예후가 불량하다. 뇌 전이 폐암도 표적항암제 치료로 암세포 성장·증식을 억제해야 한다. 3세대 EGFR 표적항암제는 혈관·뇌 장벽(Blood-Brain Barrier)까지 통과해 뇌 전이 폐암 치료에도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안 교수는 “레이저티닙 단독 치료만으로도 병리학적 완전 관해를 달성하면서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향후 폐암 치료의 새

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적항암제로 뇌 전이 폐암도 치료

더 많은 폐암 환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해외에선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맙(상품명 리브리반트) 병용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에 주목한다. 올해 유럽폐암학회(ELCC 2025)에 발표된 최근 임상 연구에서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맙 병용 요법은 기존 표준치료와 비교해 전체 생존 기간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EGFR 변이 폐암 치료법인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맙 병용 요법의 전체 생존 기간(OS)은 최소 50개월 이상으로 추정된다. 기존 표준치료법의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36.7개월)보다 12개월 이상 길다. EGFR 변이 폐암 치료에서 레이저티닙+아미반타맙 병용 요법으로 표준치료의 세대 교체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치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도 활발하다. 병용요법에 포함된 아미반타맙은 기존 정맥주사(IV) 대신 피하주사(SC)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IV제형에서 SC제형으로 바꾸면 투여 시간을 기존 5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하면서 치료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임상 연구도 나왔다.

권선미 기자

살 빼려고 실시간 연속혈당 측정하나요? 당뇨병 환자만 효과 보조

혈당 관리 돕는 연속혈당측정법

연속혈당측정은 혈당을 5분마다 측정해 데이터로 저장·관리하면서 혈당의 변화 양상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최신의 혈당 모니터링 방법이다. 연속혈당측정은 1형 당뇨병 치료에서 글로벌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표준 치료의 일부로 인정받고 있다. 인슐린 주사 치료가 필요한 2형 당뇨병에서도 연속혈당측정을 통한 혈당 조절 개선 효과 등을 확인하면서 유용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정환 교수는 “매일 바늘로 손끝을 찌러 채혈하지 않아도 팔뚝·복부 등에 붙여놓은 센서를 통해 하루 288 회씩 혈당을 측정하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혈당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같은 혈당 변동 패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루 목표 혈당 범위내시간 70% 유지를

혈당이 너무 높아도 낮아도 안 된다. 변동성이 큰 생체 지표인 혈당은 얼마나 많이 먹고(식사), 움직였는지(운동)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임수 교수는 “혈당 스파이크로 변동성이 크면 췌장의 베타세포 등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혈당인 채로 지내면 서서히 전신 혈관이 병든다. 저혈당이 나타나면 쇼크 상태가 초래돼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당뇨병은 스스로 목표 혈당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장기 예후가 달라진다. 손가락 끝에서 혈액을 채취해 하루 4~8회 혈당을 측정하는 자가 혈당측정법은 사진처럼 혈당을 측정하는 당시의 혈당만 알 수 있다. 측정 당시에는 목표 범위 이내로 측정되더라도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측정하는 당화혈색소 역시 매일, 매시간 변하는 혈당 변동성은 알기 어렵

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 연속혈당 측정이다. 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전지은 교수는 “혈당을 직접 측정하기 힘든 야간 저혈당도 연속혈당측정을 통해 확인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연속혈당측정으로 하루 중 목표 혈당 범위내시간(TIR)을 70% 이상으로 맞추도록 권고한다. 강동성심병원 내분비내과 이상배 교수는 “TIR이 10% 줄어든다면 당뇨병 합병증 위험이 64% 높아지고 당뇨병 공발병으로 악화하는 지표인 미세알부민노 발생률이 40% 높아진다”고 말했다. 혈당 관리에 소홀하면 전신 혈관 손상으로 여러 당뇨병 합병증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추세 화살표로 혈당 변동 예측하고 대응
연속혈당측정기로 안정적인 혈당 관리를 시도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은 네 가



지다. 첫째로 혈당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 확보에 신경 쓴다. 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권혁상 교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활성화용 시간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14일 이상 사용해야 유의미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둘째로 혈당 데이터를 자주 확인한다. 식사 전후 등 혈당 변동성이 큰 시간대의 변동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음식·운동 등에 따른 개인별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생활습관 교정이나 인슐린 투여 용량 등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이다. 박

정환 교수는 “기록을 자주 확인할수록 스스로 생활습관을 교정해 목표 혈당 범위 안에 있는 시간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셋째로 혈당이 목표 범위 밖으로 벗어난 원인을 점검한다. 전지은 교수는 “저혈당, 식전 고혈당, 식후 고혈당 순서대로 살피고 생활습관 등을 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세 화살표를 활용해 30분 후 혈당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는 것도 좋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다면 단순 당이나 당지수가 높은 음식일 수 있어 해당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지방의 섭취 비율을 늘리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요일별, 시간대별 특징을 살펴본다. 실시간 혈당 수치 데이터가 1주일 이상 쌓이면 손끝 채혈로는 알 수 없었던 숨겨진 혈당 변동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권선미 기자

권선미 기자

BRADDOCK FAMILY DENTAL
Children & Adults: Sedation, Cosmetic & Implants

브래덕 패밀리 치과

www.BraddockFamilyDental.com

진료시간 월 ~ 금: 8 ~ 5PM
수요일: CLOSED

최신 3D 장비보유, 최첨단 CT 촬영과 디지털 X-RAY, Intra-oral Scanner로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최선의 치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원장 조상욱 (Samuel Cho, DDS, FICOI)

- UVA
- MCV School of Dentistry
- AEGD Residency @ MCV
- Fellow of International Congress of Oral Implantologists(ICOI)
- Invisalign Certified Provider
- American Dental Association
- VA and Northern VA Dental Society

Be Social with Us!

오피스
571-339-3628
한국어 상담
571-339-3682

(조지메이슨 대학 건너편)
Braddock Rd
★
Braddock Family Dental
10513 Braddock Rd.
Fairfax, VA 22032

모든 정신질환 살인 범죄엔 전조 증상 있었다

지난달 22일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환자를 입은 30대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이 숨지고 40대 여성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주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진 이상 동기 범죄가 또 벌어졌다. 과연 이런 범죄는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을 찾으려는 심포지엄이 지난달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열렸다. 대한신경정신과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정신질환 범죄자들을 치료감호하는 국립법무병원 의료진이 ‘살인과 정신질환’을 주제로 현장에서 접한 범죄의 실상을 전했다. 좌장을 맡은 이영렬 국립법무병원장은 “영국이나 일본처럼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성명제·박해미 국립법무병원 전문의가 정신질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례와 조현병 환자의 살인을 분석해 발표했다. 환자를 괴롭히는 망상과 환청의 공포를 실감케 한다.

#사례 1 입대 후 선임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관심병사로 지냈던 A씨는 전역 후 원망과 혼잣말을 하는 증세가 나타나 외래 진료를 받기도 했다. 상태가 악화해 한 달간 모 병원에 응급 입원을 했다.

퇴원 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던 중 망상이 시작됐다. 정부와 모 병원 관계자들이 공모해 자신을 제3차 세계대전 주동자로 만들기 위해 강제 입원시켰고 입원 중 머리 안에 소형 폭탄을 심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흉기를 준비하고 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머리속에 있는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한 뒤 흉기로 의사를 살해했다.

#사례 2 우울증과 자살충동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B씨는 치과에서 스텝링 치료를 받은 후 이가 시리고 아프자 치과 치료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그는 “치과의사가 돈을 벌려고 일부러 나의 치아를 망쳐놨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며 흉기를 구입해 치과를 찾아가 의사를 살해했다.

의사 부족에 수용 정원 못 채워

이런 정신질환 범죄자들은 치료감호법에 따라 국립법무병원 등에 수감돼 치료를 받는다. 지난 3월 20일 충남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을 찾아가다. 계룡산 자락에 자리 잡은 병원은 일반 교도소나 구치소와 외관상 비슷해 보였다. 직원들의 사무 공간과 치료·수용



이영렬(64) 국립법무병원장이 뇌 CT 촬영 화면을 보며 정신질환 범죄자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살인범 과거 추적하니 음주운전·폭력 및 왕따 전력 나와 끔찍한 범행에 이르기까지 폭언·망상·흥기 준비단계 거쳐 치료받으면 안전하나 약 끊으면 모르는 사이 망상 시작 “영국처럼 정신질환 범죄자 지속적 치료·추적·연구 필요”

공간이 철저히 분리돼 있고 주요 길목마다 철문이 가로막고 있었다.

병원 관계자들과 수용 공간을 돌아봤다. 일반 교정시설과 차이가 보이기 시작한다. 바닥에서 자는 일반 재소자들과 달리 치료감호 대상자들은 침대 생활을 하고 있다.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들이 극심한 과밀현상에 고통받는 것에 비해 이곳은 공간이 넉넉했다. 수용 정원이 1200명인데 현재 수용된 인원은 900명이 안 된다. 이 원장은 “치료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MRI와 CT가 눈에 띈다.

큰 유리창이 있는 사무실에 들어섰다가 깜짝 놀랐다. 창 너머에서 수용자 10명 정도가 서성이며 사무실을 들여다보고 있다. “왜 저러는 것이냐”고 묻자 “직원들이 뭐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한다. 잠시 방 안에 머물러 달라고 방송을 하자 다들 방으로 돌아간다. 아이들처럼 통제에 잘 따르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발달 장애인 병동이었다. “이들의 범죄가 주로 뭐냐”고 묻자 이 원장은 “30% 이상이 살인”이라고 답한다. 깜짝 놀랐다. 이 원장은 “이 환자들의 주치의는 바로 나”라고 말했다. 원장실로 자리를 옮겨 문답을 이어갔다.

중앙대 의대를 졸업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된 이 원장은 국군장동병원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국립정신

건강센터(옛 국립서울정신병원)의 무사무관으로 공직에 들어섰다. 국립공주병원장·국립부곡병원장 등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공공 의료의 최일선을 지켜왔으며 지난해 5월 7일 국립법무병원장에 취임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경주 지진, 포항 지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밀양제철병원 화재, 진주 안인득 살인 방화 사건 등 시민들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심리지원에 나섰다.

이 원장은 자신이 이 길을 택한 건 부모님 영향이 컸다고 말한다. 부친은 직업군인이었고 모친은 조현병 환자였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와 정신질환을 앓은 어머니 덕분에 운명처럼 이 길을 택했다”는 그는 “치료만 제대로 하면 별 문제 없는 조현병 환자들이 방치돼 고통받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원장도 직접 주치의를 맡나.
“다른 병원 원장들은 대개 직접 주치의 맡지 않는다. 그러나 여긴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해 어쩔 수 없다.”
-정신과 전문의 몇 명 근무하나.
“현재 8명 있다. 치과 의사 2명을 포함해 의사는 모두 15명이다.”
-8000여 명의 환자가 있으니 정신과 전문의 한 명이 100명 이상을 담당하는 건가.
“그렇다. 내가 행정 업무도 해야 해서

70여명을 맡는다. 그러니 200명 정도 담당하는 분도 있다. 다른 의료기관보다 위험한 환자들을 만나야 하니 훨씬 힘들다. 이제 조금 익숙해졌지만, 처음엔 환자들의 범죄 관련 기록을 보면서 마주 앉기가 두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심포지엄 발표를 보면 정신질환자들은 자신을 입원시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의료진을 공격한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범행을 들여다보면 망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다. 특히 가까이서 돌보는 가족이 많이 희생된다.

#사례 3 C씨는 80세 할머니에 대한 망상에 빠졌다. 귀신 같은 존재가 할머니를 먹여치우고 할머니로 행세한다고 생각했다. ‘딜루전 오브 어 더블(delusion of a double)’이라는 증상이다. 여기에 환청이 가세했다. “네 할머니를 잡아먹은 귀신이 할머니 행세를 하는 거다. 안 죽이면 네가 죽는다”는 얘기였다. C씨는 흉기로 잔인하게 할머니를 살해했다.

#사례 4 D씨는 E씨를 너무 사랑했다. 치료에 따르면 D씨가 부작용 때문에 약을 끊었다.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망상이 시작됐다. 몸 쓸 병에 걸렸다고 믿었다. E씨에게 “냄새가 나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안 난다고 하자 자신이 상처받을까 봐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다. D씨는 E씨에게 병을 옮길까 봐 걱정했다. 독살한 기록도 신자인 E씨는 죽어도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해 자는 E씨를 살해하고 주변에 성경책 등을 놓았다. 자신도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했다.

살인 부른 끔찍한 망상과 환청

이런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연구가 영국과 일본 등지에서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에 놀라면서도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도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선 정신질환 범죄 분석이 부족하다고들 한다.

“영국은 살인을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평생을 추적하며 관리한다. 이런 법정신의학(forensic psychiatry) 연구가 많이 발전했다. 일본도 많이 앞서있다. 관련 내용을 파악하려면 다른 나라 연구들을 살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1년간 재입원하면서 파악한 내용이 있다.

“살인 범죄자를 분석하면서 느낀 건 대부분 뭔가 전력이 있었다. 강력 범죄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폭력, 난동 같은 전과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예측이나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인권을 중시하는 영국이 법정정신의학으로 중요한 연구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면밀히 살피면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

-약만 잘 먹어도 조현병 위험 사라져

이상 동기 살인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현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연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분석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 체계가 잘 작동하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환자들이 치료만 잘 받아도 위험이 크게 준다고 얘기한다.

강주안 논설위원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약력

- 대한민국 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 | |
|-----------|--------|---------|
| ◆ 치매 | ◆ 어지럼증 | ◆ 손발 저림 |
| ◆ 뇌졸중(중풍) | ◆ 이명 | ◆ 감각이상 |
| ◆ 파킨슨병 | ◆ 불면증 | ◆ 보톡스 |
| ◆ 두통 | ◆ 수면질환 | ◆ 통증 |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하지불안증후군

65세 여성환자가 불면증을 이유로 필자를 찾아왔다. 여성은 매일밤 잠들기가 너무 어렵다

하였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잠자리에 눕지만 하면 두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생겨 신경에 거슬린다고 한다. 환자는 다리의 안쪽 깊은 곳에서 터질 것 같거나 쥐어 짜는 통증과 더불어 두다리가 동시에 매우 저린다고 하였다.

이들 증상들은 다리를 움직여 주면 호전되는데 움직이지않고 주무르거나, 비비거나, 당기거나 하여도 일시적으로 좋아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언제부터가는 초저녁이나 때로는 오후나

오전에도 이 같은 증상이 생긴다고 한다. 아무튼 환자는 이 증상으로 잠들기가 매우 어렵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어,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였다. 환자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매우 힘들고,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강하여 이를 억제하기가 매우 어려워 결국엔 움직여야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였다.

이 환자의 증상은 2012년 국제 하지불안증후군 연구그룹이 제정한 진단기준에 부합하였다. 필자는 다른 원인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에 의한 하지불안증후군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가지 검사를 시행하였고 결국에는 환자의 문제를 하지불안증후군으로 진단내릴 수 있었다.

한 역학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5-10%에서 하지불안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편두통이 있는 경우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아마도 전체적인 신경계가 민감화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철분 결핍이 있는 환자에게 하지불안증후군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철분 부족을 하지불안증후군의 원인으로 생각하였으나, 최근의 연구결과 중추신경계의 도파민 기능저하가 하지불안증후군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

다. 위 여성환자는 도파민 효용제를 처방받았으며, 환자는 투약 첫날부터 극적인 증상 개선이 나타났고 이후 약물 조절을 통하여 상당한 증상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불면증의 매우 흔한 기저 질환으로 이를 의심하고 이와 유사한 진단을 배제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하지불안증후군은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반응을 하므로 신경내과 전문의로서 환자들에게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경과 질환 중의 하나이다.

상담 문의: 전화 571-620-7159

스마트폰 많이 보면 짜증 많아져... 종이 책 읽어야 감정조절 능력 좋아진다

“어릴수록 종이로 된 책을 읽어야 해요. 디지털 스크린에 익숙해지면 뇌가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해져 자기 조절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불편해도 쉽게 짜증을 내는 성격이 됩니다.”

소아·청소년을 20년째 진료해 온 송파 연세소울정신과의원 신원철 원장의 얘기다. 주의력 문제나 감정기복이 심해서 찾는 아이들 중에 디지털 과몰입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많다.

보고, 듣고, 감정을 느끼고 기억·판단하는 뇌는 복합 자극을 통해 발달한다. 영유아부터 소아·청소년 시기는 인지, 감성, 사회성 등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다발적으로 자극하는 통합적 활동이 중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면서 소아·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었고, 이로 인해 디지털 과몰입 증상을 보이는 아이도 증가했다.



신원철 원장은 “디지털 의존도가 높을수록 디지털 스크린의 시각적 자극 외에는 몰입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지미연 객원기자

하다. 그냥 보고 넘긴다. 읽기 방식에 따라 소아·청소년의 정서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면 장애도 문제인데.

“디지털 기기의 강력한 빛인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한다. 자기 전에 밝은 빛에 노출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 새벽까지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다. 수면은 소아·청소년의 성장뿐 아니라 학습, 기억력, 전반적 정서 조절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적어도 잠자기 한 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신 원장은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유연하게 발달해야 할 뇌 신경망이 왜곡된다”며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이 존재하고 인공지능(AI), 가상현실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 아날로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종이로 된 책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다.

종이책 같이 물리적인 도구로 정보를 접하면 언어를 해석하는 측두엽, 내용을 구조화하는 전전두엽, 기억을 정리하는 해마, 감정을 공감하는 변연계 등 뇌의 여러 회로가 함께 반응한다. 몰입형 읽기로 뇌가 상상하고 재조합하면서 복잡한 정보를 고차원적으로 처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깊게 생각

청소년 42%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

숯폼 등 시각적인 자극에만 몰입해 지금 세대는 아날로그 방식이 필요

하는 통찰력도 여기서 만들어진다.

시각 자극이 강한 디지털 콘텐츠는 스크린 속 이미지를 보면서 수동적으로 따라간다. 뇌가 정보를 스치듯 훑는 식으로 반응하면서 내용에 집중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눈에 띄는 정보만 뽑아서 처리하면서 기억에 오래 남지 않고 피상적으로 이해한다.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한 관찰 연구에서도 디지털 스크린 노출은 단순히 시각적 피질만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책을 읽었을 때는 뇌의 감각 운동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뇌파 연구에서도 이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똑같은 텍스트를 종이책으

로 읽었을 때는 베타파(집중, 감마파(감정) 등이 활성화되지만 디지털 기기를 볼 때는 멍한 상태에서 나오는 알파파 비중이 높았다. 읽기 방식에 따라 뇌가 다르게 반응하는 셈이다. 신 원장은 “디지털 기기로 영상이 아닌 글을 보더라도 뇌에서는 이미지화해 인식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원장과의 일문일답.

-교육적 목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쓰는 것은 괜찮지 않나.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논의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우려스럽다. 물론 디지털 기기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흥미를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이 정도는 학급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아이의 성장에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다. 사회성, 언어 발달에는 서로 눈을 마주 보고 감정을 공유

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데 뇌 과학적으로 디지털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종이책을 읽으면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진다는데.

“거울 뉴런 효과다. 사·소설 등 스토리가 있는 글을 읽으면 등장인물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느끼는 것처럼 공감하게 된다.

나와 비슷하지만 다른 상황을 세심한 심리 묘사로 간접 경험하면서 감정 조절 능력을 배우는 것이다.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지 몰입해 읽으면서 통찰력을 얻고 정서적 안정감도 높아진다. 매일 30분씩 종이책을 읽은 그룹은 심박수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줄었다는 연구도 있다.

디지털 기기으로 읽을 땐 내용을 건너뛰면서 정보를 처리해 감정과 관련된 뇌 활성도가 떨어지고 감정 몰입도 약

신 원장은 디지털 로그오프 실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차원적 사고를 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약해져 뇌가 충동적으로 변한다.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42.6%)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다. 그는 “어느 순간 자기 통제력을 잃으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미룬다”고 말했다.

숯폼 등을 보느라 수면 시간이 줄고 낮에 집중하기 어려워할 때, 혼자 디지털 기기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할 때,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면 극도로 화를 낸다면 디지털 중독 위험 신호다. 그는 디지털 과몰입으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에게 다른 치료와 함께 종이책 읽기를 권한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대신할 오프라인 미션을 제시하는 것이다.

권선미 기자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배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 People

Home Health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6/2 ~ 6/6 → 전화 예약 필수!

구인

- 센터빌 & 애난데일 오피스 (한국어, 영어 가능하신 분)

- Billing Coordinator -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85%가 소셜연금 혜택 축소 대신 증세 찬성

소셜시큐리티 90주년 설문조사 다시 주목
정당·소득·교육 수준 상관없이 압도적 찬성

오는 8월 14일 소셜시큐리티가 9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혜택 축소보다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선호하는 이들이 85%에 이른다는 설문조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사회보합학회(NASI)와 미국은퇴자협회(AARP), 국가은퇴보장연구소(NIRS), 상공회의소(USCC)가 지난 1월 말에 실시한 소셜 시큐리티 인식 조사 결과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무려 85%가 지지했다.

이 조사가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설문 결과 발표 한두 달 뒤 정부효율부가 사회보장국 개혁에 나서면서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35년까지 신탁기금이 고갈되면서 소셜시큐리티 혜택이 17% 삭감될 수 있다는 경고음은 최근에 더욱 커졌다. ‘도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소셜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빈곤층이 될 수혜자가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효율부의 사회보장국 개혁이 시작되고 소셜시큐리티의 지속성 우려가 불안감으로 바뀌자 1월에 나온 설문조사의 의미가 더욱 커졌다. 진정한 소셜시큐리티 개혁에 대해 훨씬 현실적인 답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21세 이상 2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보고서의 제목은 ‘소셜시큐리티 90주년: 제도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로드맵’이다. 보고서는 기존의 정책에 대한 단순한 찬반 조사 방식이 아니다. 미국인들이 실제로 어떤 정책 조합을 선호하고 정책 변화를 어디까지 수용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분석 방식을 도입했다. 제목처럼 백악관과 의회가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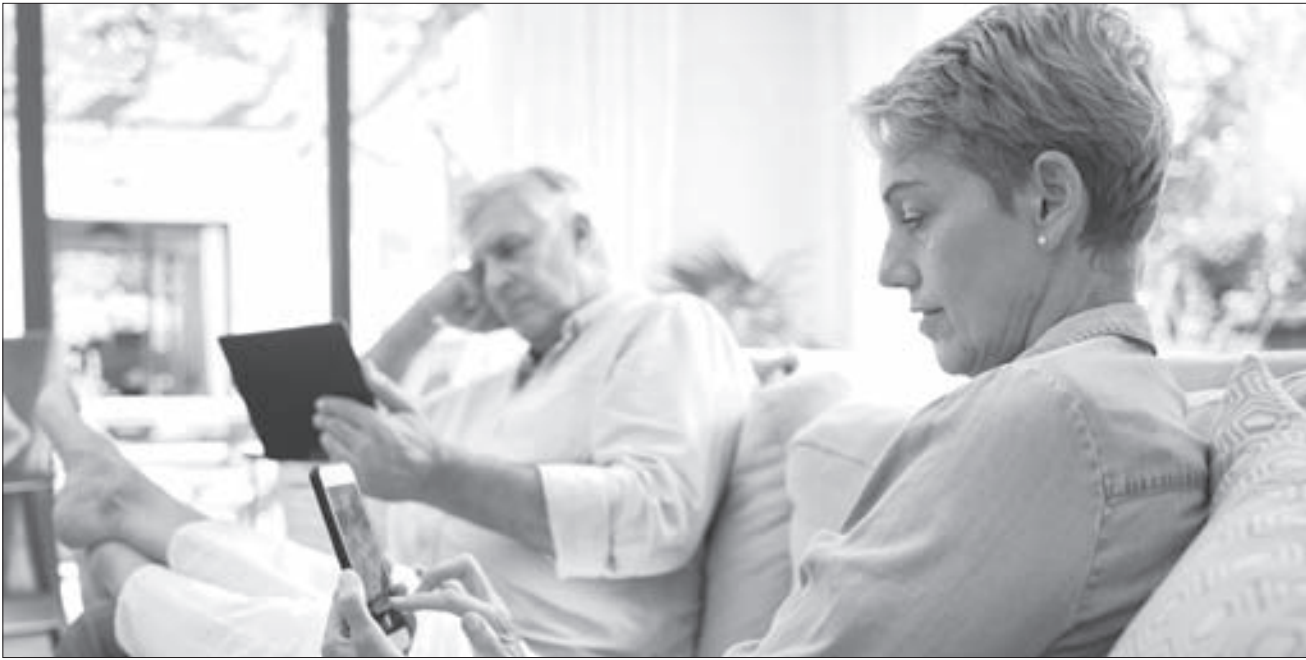
기적인 재정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사 결과, 정당과 세대, 소득,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소셜시큐리티 제도가 은퇴 생활의 핵심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85%가 혜택 축소보다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선호한다고 응답해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증세 감수하겠다는 이들을 정당 별로 보면 공화당 응답자의 약 75%, 민주당 응답자의 90%, 무소속 응답자의 80%였다. 초당적인 압도적 찬성이다.

가장 큰 지지를 받은 정책은 연 소득 40만 달러 초과자와 해당 고용주의 급여 상한선을 폐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되 이에 따른 추가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또 대부분의 응답자는 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도 찬성했다. 연 소득 5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근로자는 월 42달러 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는 점도 지지를 끌어냈다.

반면, 수급 연령 상향이나 물가 조정분(COLA) 축소 등 혜택 축소에 강하게 반대하는 응답이 많았다. 오히려 자녀 돌봄 등을 위해 경력이 단절된 사람에게는 별도의 크레딧을 부여하거나, 육체노동자에게는 조기 수급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교량 혜택’을 제공하자는 제안에 폭넓은 지지가 나타났다.

장애인 혜택에 대해서도 90% 이상의 응답자가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했고 소셜시큐리티를 장애 발생 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간주했다. 아울러 보충소득보장제도(SSI)의 자산 기준이 2000달러로 너무 낮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



다. 설문조사를 한 NASI 등의 주요 인사는 보고서의 결과가 정치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도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초당적 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NASI의 레베카 벨러스 최고경영자는 “이 보고서는 미국인들이 제도의 미래에 대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며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AARP의 데브 위트먼 정책 책임자는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갈라진 시대에 이처럼 하나로 뭉친 의견은 드물다”며 “모든 미국인은 자신의 혜택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IRS의 타일러 본드 리서치 디렉터는 “소셜시큐리티는 은퇴 생활의 핵심 기반이며 대다수 국민이 재정 부족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CC의 셸리 시엑스 연금 정책 부사장은 “민간 연금과 공적 연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미국인은 이 둘 모두를 지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소셜시큐리티 지지단체인 ‘소셜시큐

리티 워크스’의 낸시 올트먼 회장은 “미국인은 소득이 높은 이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원하며 필요하다면 본인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셜시큐리티 혜택 축소를 지지하는 정치인은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사회보장·메디케어 보존위원회(NCPSSM)’의 댄 애드록 정책 담당 이사도 “소셜시큐리티는 유권자와 깊은 정서적 유대를 가진 제도”라며 “의회는 제도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소셜시큐리티 개혁안은 공화당 등에서 활발하게 개선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정년 연령을 69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급여세 인상과 과세 상한선 확대 대신 프로그램 운용 비용을 삭감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개혁안은 ‘초당적 로드맵’에 나타난 여론과도 거리가 멀다.

개혁안의 단골 메뉴는 증세와 부유층 수량이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급여세율을 12.4%에서 12.6%로 점진적으

로 올리고 2039년까지 임금의 90%까지 소셜시큐리티 과세 대상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과세 대상 임금의 상한선을 어디까지 올리느냐도 논란거리다. 현재 과세 상한선은 17만6100달러지만 이를 없애고 소득자 전면 과세로 소셜시큐리티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부터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절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부유층이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도 있다. 일부는 부유층의 급여를 제한하면 제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올해 기준으로 소셜시큐리티 월 평균 수령액이 1980달러인데 억만장자가 최대 수령액인 월 5108까지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혜택은 받는 방식이 불공정하며 혜택을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모두가 수혜를 받지 못하면 제도에 대한 지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안유희 객원기자

건강 칼럼

임플란트, 노년 ‘삶의 질’ 바꾸는 치료

“예전엔 뭐든 잘 씹었는데, 요즘은 밥 먹는 게 겁나요.”

진료실에 오는 많은 시니어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지 못한단 말을 하며 슬픈 표정을 짓곤 합니다. 보통 70세가 넘으면 어금니가 빠지거나 흔들립니다. 그 상태로 오래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식사 자체만으로도 아픔을 느끼고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

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 소화 장애로 이어집니다. 충분히 씹지 않고 넘긴 음식에 위장에 부담을 주고, 제대로 영양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늘 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둘째, 먹는 즐거움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담백하고, 매콤하고, 달콤하고, 새콤한 그런 다양한 맛을 즐기면서 자주 먹는 음식이 주는 안정감, 특식이 주

는 설렘 같은 모든 먹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아를 잃고 저작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경우 우울감이나 인지 기능 저하가 평균 이하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통해 얻는 정신적 만족감, 저작 활동을 통한 자극이 뇌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플란트는 단순히 이를 심는 시술 그 이상입니다. 먹고 싶은 걸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자유와 기쁨을 되찾아줍니다.

특히 수면 중 진행되는 ‘의식하 진정 요법(수면 임플란트)’을 이용하면 임플란트 치료 자체로 인한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물론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 전신질환들도 사전에 주치의와 협업체 위함부담 없이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78세 여성 환자는 첫 진료 당시 어금니가 모두 빠져 없었고,

틀니도 맞지 않아 2년 가까이 생선 살과 죽만 먹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 권유로 무사히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난 후 검진 차 다시 와서 기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맛있는 것을 먹었던 즐거운 기억, 다시 돼지갈비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에 더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후 체중까지 회복되어 눈에 띄게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현준 대표원장 / 한국 연세철치과의원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불면증, 어지럼증
- 만성피로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소화장애, 순환장애
- 교통사고 후유증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한국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외대사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력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개츠비·팬텀·위키드까지... 뮤지컬 팬, 가슴이 뛰다



미국, 영국에서 먼저 선보인 ■ ‘위대한 개츠비’는 8월 국내 관객과 만난다. 가스통 르루의 소설 『오페라의 유령』이 원작인 ■ ‘팬텀’은 이달 말부터 10주년 공연을 한다. 브로드웨이 초연 20주년이 된 ■ ‘위키드’의 두 마녀는 7월 한국에 상륙한다. [사진 오디컴퍼니·EMK뮤지컬컴퍼니·에스엔코]

‘여름 대목’을 겨냥해 다양한 뮤지컬 대작이 선을 보인다. 한국을 다시 찾는 ‘위키드’와 최근 런던에 진출한 ‘위대한 개츠비’와 같이 국내서 보기 드문 외국어 공연 뮤지컬이 연이어 상륙한다.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팬텀’ 등 스테디셀러 작품도 연말과 함께 공연 성수기로 꼽히는 여름철 뮤지컬 팬을 기다린다.

◆외국어로 즐기는 뮤지컬 잇따라=가장 기대를 모으는 작품은 ‘위키드’ 오리지널 내한 공연. 오는 7월 12일 서울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개막한다.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뮤지컬 ‘위키드’는 고전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재해석한 그레고리 매과이어의 동명 소설을 뮤지컬로 옮긴 작품이다. 발랄하고 야심차며 아름다운 외모로 인기가 많은 글린다와 열정적이고 특별한 재능을 지녔지만 초록색 피부를 지닌 덕에 천덕꾸러기 신세인 엘파바의 우정과 성장기를 담았다. 2003년 브로드웨이 초연 후 20년 넘게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사상 최초로 미국 브로드웨이 주간 박스오피스 500만 달러(약 70억 원)를 돌파하기도 했다.

한국 뮤지컬 흥행작 대부분이 국내 배우가 연기하는 작품으로 채워지는 상황에서, 오리지널 팀의 내한 공연이 국내 관객에게 어떤 점수를 받을지 주목된다. 원종원 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교수는 “‘위키드’는 작품성과 화제성이 이미 검증된 데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를 본 관객들이 무대를 궁금해 할 수 있다”며 “‘위키드’가 성공할 경우 잠재된 국내 내한 공연 시장 규모도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국인 배우가 연기하는 또 다른 대형 뮤지컬 작품인 ‘위대한 개츠비’도 국내 무대에 오른다. 영어 공연에 한

여름 수놓을 대작 뮤지컬

‘위키드’ 13년만에 오리지널 내한 ‘위대한 개츠비’ 한국 관객에 첫 선 ‘매디슨 카운티의...’ 등 인기 꾸준 ‘프리다’ 등 창작 작품도 무대 올라



국어 자막이 제공되지만,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가 단독 리드 프로듀서를 맡고 오디컴퍼니가 지식재산권(IP)을 가진 한국 뮤지컬이다. 지난해 4월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개막했고, 지난 4월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현지 팬들에게 선을 보인데 이어 오는 8월 1일 처음으로 한국 관객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올해 개관한 GS아트센터의 첫 뮤지컬 작품이다.

신춘수 대표는 서울 공연에 대해 “흔히 생각하는 투어 공연이 아닌 서울만을 위해 꾸린 오리지널 프로덕션”이라며 “이 공연 후 한국어 버전도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믿고 보는 스테디셀러, 예매 상위권=뮤지컬 팬에게 익숙한 작품의 재연도 잇따른다.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지난 1일부터 7년 만에 관객과 만나고

있다. 운명적인 사랑을 다룬 동명의 소설이 원작. 이번 공연에서는 조정은·차지연과 박은태·최재림이 각각 남녀 주연을 맡았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주간(5월 13일~5월 19일) 총 티켓예매액 뮤지컬 부문에서 ‘알라딘’에 이어 2위에 자리했다.

주간 예매액 3위에 오른 ‘팬텀’은 이달 31일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10주년 공연을 한다. 가스통 르루의 소설 『오페라의 유령』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같은 소설이 원작인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 자주 비견되는데, ‘팬텀’은 주인공의 인간적 면모를 강조하고 크리스티나의 러브 라인을 강화해 관객의 공감을 이끈다는 평. 지난 2015년 뮤지컬 부문 티켓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했다. ‘팬텀’ 역은 박효신·카이·전동석이 연기한다.

흑인 음악을 백인 사회에 알린 전설적인 DJ 듀이 필립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앰피스’는 다음 달 17일부터 서울 충무아트센터에서 재연한다. 2023년 이후 2년 만. 그해 한국뮤지컬 어워드에서 작품상, 프로듀서상, 연출상, 무대예술상(음향), 앙상블상을 받았다.

◆초연·30주년... 다양한 창작 뮤지컬=‘뮤지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메타 뮤지컬(뮤지컬에 대한 뮤지컬)’이 개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뮤지컬단은 창작 뮤지컬 ‘더 퍼스트 그레이트 쇼’를 29일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한다. 1960년대 한국 최초의 뮤지컬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풀어낸 코미디 뮤지컬이다.

올해 30주년이 된 ‘사랑은 비를 타고’(7월 13일까지), 프리다 칼로의 생애를 그린 ‘프리다’(9월 7일까지) 등의 창작 뮤지컬도 공연을 이어간다.

하남현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현관 가로막은 의자의 정체는...

서울 삼청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주출입구 야외 계단에 빨강·파랑·오렌지색 긴 의자가 놓였다. 출입구를 완전히 가로막아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구조물이다. 선명한 색상은 국립서울농학교 학생들이 골랐다. 미국의 농인 건축가 리처드 도허티의 ‘농인 공간: 입을 맞추는 의자’로, 전시 ‘기울인 몸들: 서

로의 취약함이 만날 때’ 출품작이다. 의자는 서로의 손과 입을 보며 대화하는 수어 사용자들도 편리하게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구조다. 쉼터가 생긴 대신 출입구가 가로막혀 옆의 경사로를 이용해야 한다. 도허티는 15일 전시 기자간담회에서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램프(경사로)를 이제는 모두가 천천

히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의 수어는 영어 수어 통역사, 영·한 통역사와 한국어 수어 통역사의 입과 손으로 전해졌다.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4층 통역을 모두가 바라보고, 귀를 기울였다.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몸과 감각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는 미술 전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출입구를 가로막은 색색의 긴 의자는 미국의 청각장애인 건축가 리처드 도허티의 작품이다. 수어 사용자들도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연합뉴스]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아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www.naturadent.net

www.naturadent.net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구강교육치과

www.naturadent.net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NBA 4강 주역들. 왼쪽부터 사이 길저스-알렉산더(오클라호마시티 선더스), 앤서니 에드워즈(미네소타 팀버울브스), 제일런 브런슨(뉴욕 닉스), 타이리스 할리버튼(인디애나 패이서스). 오클라호마시티와 미네소타의 1차전은 20일, 뉴욕과 인디애나는 21일 붙는다. [로이터]

씩 바뀐 ‘파이널 포’ ... ‘언더독’의 대결

“뜻밖의 파이널 포(final four·4강).” 스포츠매체 디어슬레틱은 18일 확정된 2024~25시즌 프로농구(NBA) 플레이오프 4강(7전4승제)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다.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 셀틱스, 지난 시즌 준우승팀 댈러스 매버릭스, 스타군단 LA 레이커스 등 ‘단골’ 우승 후보가 모조리 탈락했다. 반면 오클라호마시티 선더스, 뉴욕 닉스,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인디애나 패이서스 등 ‘언더독’(스포츠에서 약팀)이 살아남았다. 뉴욕(1970~73년)을 빼곤 파이널(챔피언결정전) 우승 경험도 없다.

오클라호마시티는 이날 열린 NBA 서부 콘퍼런스 플레이오프 2라운드 7차전에서 덴버 너기츠를 125-93으로 물리쳤다. 시리즈 전적 4승3패의 오클라호마시티는 PO 4강(서부 콘퍼런스 결승)에 진출했다.

오클라호마시티는 올 시즌 정규리

NBA 플레이오프 4강 확정
서부, 선더스 vs 팀버울브스
동부조는 닉스 vs 패이서스

그 승률 전체 1위(83%·68승14패)를 차지했지만, 우승 후보까지는 아니었다. 오클라호마시티가 PO 4강에 오른 건 2015~16시즌 이후 9년 만이다. 당시 오클라호마시티는 스테픈 커리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막혀 파이널에 오르지 못했다. 이번엔 달랐다. 오클라호마시티는 전성기를 맞은 정규리그 득점왕(32.7득점) 사이 길저스-알렉산더(27)를 앞세워 강팀을 차례로 격파했다. 오클라호마시티의 우승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게 현지 전망이다.

커리가 부상으로 빠진 골든스테이트를 4승1패로 누르고 4강에 선착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가 오클라호마

시티와 파이널 진출을 다룬다. 미네소타는 서부의 ‘만년 하위팀’으로 유명하다. 지난 20시즌 중 PO에 진출하지 못한 시즌만 16차례다. 2003~04시즌 이후 20년 만인 지난 시즌에 4강에 올랐다. 하지만 댈러스에 막혀 파이널에는 오르지 못했다.

미네소타에 슈퍼스타는 없지만, 베테랑 포워드 줄리어스 랜들(31)과 신예 가드 앤서니 에드워즈(24)의 팀플레이가 위협적이다.

뉴욕은 동부 콘퍼런스 ‘기적의 팀’이다. 뉴욕은 동부 콘퍼런스 정규리그 1위 보스턴을 시리즈 전적 4승2패로 제압했다. 올 시즌 PO 최대 이변으로 꼽힌다. 뉴욕은 이로써 1999~2000시즌 이후 25년 만에 4강 무대를 밟았다. 가드 제일런 브런슨(29)이 득점과 볼 핸들링(운영)을 모두 책임진다. 4강 중에서도 약체로 꼽히는 뉴욕에는 든든한 응원군이 있다. 할리우드 스타군단이다. 긴 부진

에도 티모시 샬라메, 린제이 로한, 벤 스틸러 등 많은 할리우드 스타가 흥경기장인 매디슨 스퀘어 가든을 찾아 응원한다.

뉴욕의 상대는 동부 콘퍼런스 정규리그 2위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4승1패로 물리친 인디애나 패이서스다. 인디애나도 PO 1라운드에서 탈락하던 하위권이다. 2013~14시즌 이후 처음으로 4강에 올랐다. ‘3점 슈트 달인’ 레지 밀러가 활약한 1990년대 이후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2000년생 신예 가드 타이리스 할리버튼(25)이 주축 선수로 자리매김하며 팀이 확보되었다.

할리버튼이 이끄는 공격력은 4강 중 최고로 평가받는다. 베테랑은 뉴욕의 승리 가능성을 더 크게 봤다. 오클라호마시티와 미네소타의 1차전은 20일, 뉴욕과 인디애나의 1차전은 21일 차례로 열린다.

피주영 기자

김혜성 MLB 생존 다저스 테일러 방출

메이저리그(MLB) 승격 직후 불꽃 같은 타격 감각을 뽐내며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으로부터 “요술 방망이”라는 찬사를 받은 김혜성(26)이 생존에 성공했다.

한국계 내야수 토미 현수 에드먼이 부상으로 잠시 전열에서 이탈하는 동안에만 빅리그를 짧게 경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력으로 경쟁에서 승리했다. 다저스 구단은 18일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애인절전을 앞두고 에드먼을 부상자 명단에서 복귀시켰다.

로스터에 자리를 마련하고자 다저스는 베테랑 내야수 크리스 테일러(34)를 방출대기 조치했다.

마이너리그에서 시즌 개막을 맞이한 김혜성은 지난 4일 빅리그로 승격돼 14경기에서 타율 0.452(31타수 14안타), 1홈런, 5타점, 9득점, 3도루, OPS(출루율+장타율) 1.065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반면 올해로 다저스에서 10번째 시즌을 맞이한 테일러는 28경기 타율 0.200(35타수 7안타)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한편, 이날 다저스는 애인절스에 4-6으로 패해 3연패에 빠졌다. [연합뉴스]

이정후 2경기 연속 무안타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2경기 연속 무안타로 침묵했다.

이정후는 18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MLB) 애슬레틱스와 홈경기에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76으로 떨어졌다. 이정후는 왼손 선발 투수 제프리 스프링스를 맞아 1회와 4회, 7회 세차례 타석에서 내야 땅볼로 아웃됐다.

8회 2사 1루에서 맞이한 마지막 타석에서는 오른손 불펜 투수 그랜트 홀먼과 상대해 중견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3-2로 승리한 샌프란시스코는 3연승을 질주하며 시즌 28승 19패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① 워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료트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재판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이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포터랜드에서 3분, 신포스프링 북에 10분, 한미타운+maro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첼러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북에/한미타운+maro와 첼러리 로데에서 각각 5분거리

우메켄 가정의 달
특별 이벤트

UMEKEN

“두근거림이 사랑 때문인지, 심장 때문인지 알 수 없다면...”

가끔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슴 속 두근거림이 설레는 감정 때문인지,
아니면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인지...
당신의 심장과 감성을 모두 챙기세요.

나토키나제가 선사하는 건강한 혈액순환으로
심장은 조용히, 감정은 뜨겁게 지켜드립니다.
혈전 걱정 없이 진정한 설렘만 간직하세요.
건강한 심장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도 오래 지속됩니다.

나토키나제 - 당신의 심장을
지키는 사랑의 파수꾼

★★★★★
시리즈 누계
90만부
 돌파!

노인들의 세상을 유쾌하게 만든
실버 센류 모음집
シルバリーセンリョ



일본 전역을 웃음 바다로 만든 가장 잘 팔리는 실버 센류!

‘센류’는 일본의 5-7-5 총 17음절 정형시입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은 전국유료실버타운협회가 11만여 응모작 중 선별된 88수를 담은 실버 센류 모음집이고 초고령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실버 세대인 어르신과의 생활을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메켄 나토키나제를 구매하시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책 받는 방법

- 주문전화: 888-941-3311 • 대리점: 아래 매장 위치 참조 • 온라인: umeken.com/book
- 나토키나제 60포 제품 구매 시 한 고객당 1권 가능 • 한정된 수량으로 선착순 증정



혈관 속 돌아다니는 혈전

혈전 관리가 심장 건강의 시작입니다

혈관 속 핏덩이인 혈전(血栓)이 심장 또는 뇌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사전 통증도 없이 혈관 관련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일본 전통음식 낫도에서 추출한 우메켄 나토키나제!

나토키나제의 놀라운 혈전 용해작용



나토키나제는
뭉쳐있는 혈관 속
혈전을 녹여
건강한 혈관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2박스
구입시
1달분 증정

우메켄
나토키나제(정)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심장 질환,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중풍 등의 성인병이 걱정되시는 분
- 혈관 장애 가족력이 있으신 분 • 평소 기름진 식생활로 피가 걸쭉하고 탁하신 분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우메켄
구입처

■ ANNANDALE • 웰빙모아 (703)256-5500 • 건강마을 (703)354-151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CENTREVILLE • 웰빙모아 (703)830-775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ELLICOTT CITY • 롯데플라자 (410)750-9656 • 모드니에 (410)615-6167 • 힐링 마을 (443)878-9010 ■ CATONSVILLE • BESETO (410)303-5530 ■ GAITHERSBURG • GREEN COSMETIC (301)926-6307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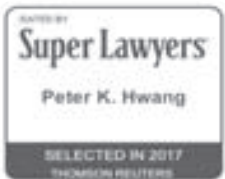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e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e Program

교통사고

Sung Hwang&Kim | LLP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5월
구
인
광
고

척추신경병원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내놓습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

TEL: 571-212-3082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피트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직원모집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메케닉

영주권 스폰서 가능!
좋은 대우!

연락처

410-446-9981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Realty

571-239-6054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엘리컷시티 카페에서 금/토/일 주방에서
뒷일 하실분 구합니다.
443-386-051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쉬)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엘리컷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찬모/ 웨이츄레스/ 웨이터
부패 담당 웨이츄레스
▶443-420-3096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
를 구합니다. 엘리컷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
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 지역, MD - 경험 많은
Handyman - Part Time Office 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 지역, MD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 333-2209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쉬)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엘리컷시티 픽업 스토어 카운터 구함
폴/파타임, 배킹만 하실분, 영어 가능하신분
410-926-3200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소에서 바지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 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
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싱글/타운방 렌트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단독주택 방 렌트. 넓은 이층방, 인터
넷, 가구완비, 간단한 취사
240-543-6427

글렌버니 (UMBC 20분) 방 하나,
유도 \$500
443-668-2341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뉴그랜드마트 근
처, 욕실 딸린 큰방 하나, 보통방 하나, 반 지하
방 하나 (출입구 별도),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8-1438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
장고/욕실/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여성분
240-413-2738

볼티모어 오잉스밀스 좋은 동네 타운하우스
2층 방 하나 렌트 유도 \$600 여성분 환영
443-844-6296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 유도
443-631-7866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 자이안트엠티 - SeaFood 매매
\$195,000
주매상: \$9,500/웬트: \$3,750
All(6일 근무) 부부 가능. 좋은 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매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 리모델링/저렴한 임
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 지불*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 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걸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케어피플 홈헬스 (센터빌 & 애난데일)에서
Billing Coordinator (한국어, 영어 가능하
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케어피플 홈헬스 (애난데일 오피스)
Billing Coordinator (한국어, 영어 가능하
신분)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
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
설팅. 2024년에 본인 또는 가족 소득이
\$67,000 미만인 경우 세금 보고 무료 서비
스 안내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 근무 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폴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폴/파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 버스 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직원 구
함. 유경력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력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맨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와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맨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폴/파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애난데일 신선 설령탕에서 웨이츄레스 2명
급구합니다.
240-253-3518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
하실 서버/바텐더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애난데일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헬퍼 아
주머님, 카운터 캐쉬어 구합니다.
703-401-9879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아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엘리컷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찬모/ 웨이츄레스/ 웨이터
부패 담당 웨이츄레스
▶443-420-3096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
하실 히바찌 셰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타
임/풀타임 가능
703-258-4356

패어팩스 H MART 근처 새로 오픈하는 일
식집 (IZAKAYA)에서 호스트, 서버, 바텐더
구합니다.
703-628-9168 (문자요망)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짜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력자
703-489-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남녀 불문 유경력자 캐쉬어 구함
703-774-7443

애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파타
임, 캐슈페이 가능
571-352-4938/ Chimc.va@gmail.com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i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 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 (주말 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물에서 5분 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이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중앙일보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아발소에서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부스렌트,스킨케어룸 원하시는분 구함.
자세한사항은 문자,메세지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엘터레이션

세탁소 픽업스토어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배강 하실분/
파/풀 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틀에서파
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자동차/정비/바디샵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 경험자 구함
571-332-6110

첼틀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하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준메케닉,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
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말

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청소/기타구인

센터빌가정집에서 베이비시터 구합니다.
화/금/토 저녁 6시-9시반까지 8세, 9세 아
이들 돌봐주실분
201-684-8974

버크 태권도 사범님 구합니다. 풀타임
\$50K-\$55K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홈케어(센터빌)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사: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스폰서가능합니다.
571-422-7189

알렉산드리아 치매치킨 홀말아서해주실분
703-473-6022.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십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훈.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훈
240-903-0777

엘리콧시티 픽업
풀 or 파트타임 유경험자 환영 9-6pm
410-926-3200

싱글/타운홈렌트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다수, 콜린 파웰초,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 화3.5, 2car, 전부 마루, 주차다수
SouthCounty 하이, RT95/395/286/123
3. Ashburn 타운홈 \$3,500
방3, 화3.5, 2 car, 주차다수, Briar Wood
▶571-239-6054

센터빌 롯데근처 타운홈 렌트 1,800sqft
방3, 화3.5, 차고1, 집 전체 마루, 6월말 입주
703-344-6273

센터빌 롯데근처 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 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움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렌트 (옥튼HS)
2100sqft, 방4, 화3.5, \$3200
470-485-1875

첼틀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
3.5, 차고 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
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콘도 렌트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헌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
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
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애난데일 10
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 없
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1. 옥튼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렌트

495와 395가 인접한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
한 싱글홈 방렌트, 가구/인터넷/간단한취사
비흡연자,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페어팩스 INOVA 병원 뒤 타운하우스 지하 전
체 렌트, 방1/화/부엌/세탁기, 직장인 여자
분 환영, 6/15일 이후 입주 가능 \$800
703-350-1986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세놓습니다
유포 \$1,100
▶301-928-4125

한강위 싱글홈 새로 고친 반 지하 방3, 욕실2
큰 거실 입구 별도 주차 넉넉 즉시 입주 가능
703-395-4380

페어팩스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GMU에서 3분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658-1117

버크 Hmart 근처 싱글홈 방렌트, 조지메이
슨/노바에서 10분거리, 가구완비, 파킹, 인
터넷 유포 \$800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703-939-2737

애난데일 메시아장으로 교회 뒤 타운홈 2층 방
하나 렌트, 비흡연자 환영
703-887-5173

페어팩스 왓슨 하이스쿨 근처 싱글홈 지하 전
체 렌트, 조용한 동네, 워크아웃, 큰 방1/부
엌/욕실/거실/세탁기, 건조기/유포
571-271-3556 (문자요망)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 하나
세탁/가구/취사/인터넷 완비 여자분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Candem 아파트 5월, 6월, 7월
단기 서브리스 합니다. 방 1, 풀베스 1, 셰어
키친, 파킹 티켓 1, 월 \$800
571-623-0255

애난데일 노바 근처 싱글홈 아랫층 전체 렌
트 방2/새 주방/욕실/워크아웃
703-336-3283

버크 싱글 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버크레이
크 파크 앞) 부엌, 욕실, 세탁, 가구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워크 아웃
703-505-8866

센터빌 싱글 지하 워크아웃 (세탁, 주방)
1,000sqft 방1, 화1 \$1,200
470-485-1875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근처 2분 거리
방1개, 직장인 남자 환영
571-530-7322

애난데일 K마트 근처 싱글하우스 방 하나 렌
트, 주차 넉넉
703-965-2343

스프링 필드 방+거실, 워크아웃, 가구/인터
넷완비, 즉시 입주 가능, 여자분 환영
703-609-4547

페어팩스 코스코 옆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화장실/거실/가구완비
703-362-5425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유포
443-631-7866

스프링필드 타운홈 2층 작은 방 하나 렌트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581-9515

애난데일 예촌 앞 타운홈 방렌트, 직장인, 학
생 환영, 취사 가능
703-622-2033

센터빌 CVS 근처, 타운홈 이층 작은 방 하나,
잠만 주무실분, 여성분 환영
571-243-7027

애난데일 H마트 근처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230-2244

센터빌 스톤로드 방 렌트 \$650 유포 포함
703- 474- 9713

첼틀리 롯데 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여자분 \$600
703-678-7833

아난데일 예촌 근처 반 지하 방1/화실/샤워/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703-629-6275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사무실 콘도 렌트 800 sq
571-237-3411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 스페
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1. Falls Church 콘도 매매 \$224,900
800 sqft, 전부 리모델링, 방1, 화1, 유틸리
티 콘도비 포함, Mosaic, Gallows Rd,
편리한 교통, RT 495/29/50
2.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3.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군, 전
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4.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Stafford 싱글하우스 \$719,000
완전 업데이트된 예쁜 단독 주택, 2011년에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지은집, 방5, 화5, 최고급 자재로 집 전체업그레이드, 워크아웃, 넓은 텍, Stone Patio, 새단지
▶703-813-8949

콘도매매 \$375,000 스프링필드 방2, 화2, 새 카펫, 새 페인트, 탁트인구조, 넓은 리빙룸, 발코니2
703-813-8949

콘도매매 \$369,900 스프링필드 밝고 환한집 방2, 화1, 업데이트 (HVAC, 부엌, 화장실) 새 카펫, 새 페인트, 넓은 리빙룸, DEN1, 넓은 발코니
703-813-8949

1. 사우스라이딩 싱글홈 \$1.19M 방4, 화3.5, 차고2, 5540sf, 코너랏, 집주인이 관리 잘한 집,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Move-in Ready
2. 패어팩스타운홈 \$825,000 방3, 화3.5, 2007년산, 굿 로케이션, 관리가 매우 잘된 집
▶703-919-0472

콘도 매매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세탁기,건조기,발코니,스토리지+
703-336-3283

1.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골프 커뮤니티 싱글 \$1,060,000 방4, 화4.5, 차고 2, 페리오, 스크린 텍, 4,433sqft, 0.3 acre, 2004
2. 콘도매매 \$485,000 밝고 환한 8층, 맥클린앤드유니, 시원한 레이아웃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방2, 화2, 테라스, 차고2, 1,335sqft, 엘리베이터
3. Open House 4/13 (SUN) 2-4pm 게인스빌 콘도 \$425,000, 방3, 화2.5, 차고1, 1,778sqft, RT29/66, Giant, Harris Teeter, Gateway Shopping mall
▶703-239-6054

에난데일 콘도 \$210,000 완전 리모델링된 환하고 밝은 예쁜 콘도, 나무마루, 새롭게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H Mart 가가움
▶703-813-8949

센터빌 중심에 위치한 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앞, 1230sqft, 콘도비\$348.77/m, Giant 66/28/29
▶703-239-6054

1. 패어팩스 싱글 \$1,150,000 방4, 화장실4+1, 차고 2, 패어팩스 코스코 근처에 있는 멋진 싱글홈
2. 패어팩스 싱글 \$850,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밝고 이쁜 집, 마루바닥, 넓은 뒷뜰
3. 패어팩스 싱글 \$1,300,000 방4, 화장실 4+1, 차고2 벽돌로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 고급 주택 0.7 에이커
4. 패어팩스 싱글 \$1,900,000 방4, 화장실 3+1, 차고 2, 맨투아 초등학교 모던하게 지은 멋진 새집
5. 옥튼새 싱글 \$2,300,000 방5, 화장실 4+1, 차고2 1.8에이커의 넓은땅에 지어진새 집, 옥튼 HS 6. 맥클린 싱글 \$2,200,000 박4, 화장실 4, 차고 2, 모던한스타일로 지어진 멋진 고급 주택, 맥클리 HS
▶703-899-8999

1. 센터빌타운하우스 \$600,000 방4, 화장실3.5, 랜트수익 \$2,900
2. 레스톤타운하우스 \$620,000 방3, 화장실2.5, 랜트수익 \$3,000
3. 패어팩스타운하우스 \$800,000 방3, 화장실3.5, 호수뷰, 차고 2, 랜트\$3,600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계단없슴.
2. 매나서스콘도 \$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콘도, 그로서리, 병원,레스토랑,도서관등 좋은 생활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2001년부터 에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시설 일체 포함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합니다. 관심있는 분들 연락 바랍니다.
▶571-212-3082

미장원 리스 게인스빌 성업중인 미장원 렌트 \$3,300/m 1,300 sf, 29/66, 세븐일레븐옆
▶571-239-6054

미장원 매매 센터빌 중심 성업중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식당급매 (한식+일식) 센터빌, 캔들리 VA 연매상 100만+25만,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급매 (매매가격:\$59,000) 혼자 할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6,500 업종: 캔디배달(VA, MD),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 엔지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의 창출위해 함께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출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바이어 Only)
571-242-3736

중고매매/기타

소니 카메라- a7m3, a7r2, a7r4 좋은 금액으로 구입하세요.
703-225-9746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핸디맨 중고 장비 포함
703-864-5346

혼다 CRV SUV 2013년 18만 마일, 한주인/상태양호 \$6,000
213-767-2381

무쇠 가마솥 식당용 중고 큰 사이즈 필요하신분
703-401-9997

식당용 테이블 11개, 의자 40개 중고 상태 좋음
703-401-9997 (문자요망)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날)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703-626-7370 YJ CHOI

혼다 오트세이 미니밴 2007 26만마일 뉴타이어 상태굿 \$3,000
571- 814-8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수학개인과와 합니다. (면대면 및 줌 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와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우표수집 하시는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Frier furnace 4ea, Oil c/L machine 1ea Mix machine 1ea, 찬찬 Refrigerator 2ea Cash register 1ea Beltsville, MD 20705
443-904-7146

건축/페인트/마루

손싸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크루 구합니다. (타주)
540-680-1571 / 703-955-2827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을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만 들어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론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제인 최 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융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टे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달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옷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티밍삼품,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폴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보험처리가능/용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및설치 (키친후드, 닥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앨런)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유리교체 및 특별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올타리 라인/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웍산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넷,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페이와 근무시간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교량이 가계 다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설치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 · 기술력 과 서비스 · 경쟁력 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텍,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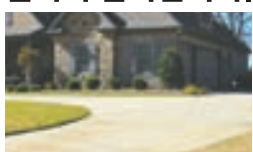
703.965.3011

콘크리트 보수 / 유리

콘크리트 보수

내려 앉은 콘크리트 올려 드립니다.
새로 만드는데보다 저렴합니다.
안 고치시면 발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계단
워크웨이
페디오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재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가들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 • 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퍼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크스کم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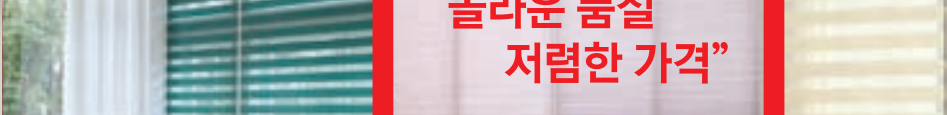
블라인드 / 텐트

“Better than the Best Quality”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Eric: You look tired Dan.
에릭: 댄 너 피곤해 보인다.
Dan: I am,
댄: 피곤해.
Eric: Did you stay up late last night?
에릭: 어젯밤에 늦게까지 안 잤어?
Dan: Yes. I pulled an all-nighter studying for the test today.
댄: 응. 오늘 보는 시험 공부하느라 밤을 샜어.

Eric: You must be bushed.
에릭: 정말 피곤하겠다.
Dan: I am. I can't keep my eyes open.
댄: 그래. 눈이 계속 감겨
Eric: How do you think you'll do on the test.
에릭: 시험 결과는 어떨 것 같아.
Dan: I hope I pass it.
댄: 통과하길 바라는 거지.
Eric: I hope I pass it too.

에릭: 나도 통과했으면 좋겠다.
Dan: I better pass after I put in eight hours studying this morning.
댄: 오늘 아침까지 8시간을 공부했으니까 통과할 거야.

기억할만한 표현

▶ *stay up late: 평소보다 늦게까지 안 자다.
“We stayed up late talking about our future.”

pull (or do) an all-nighter; 밤새워 일 (공부)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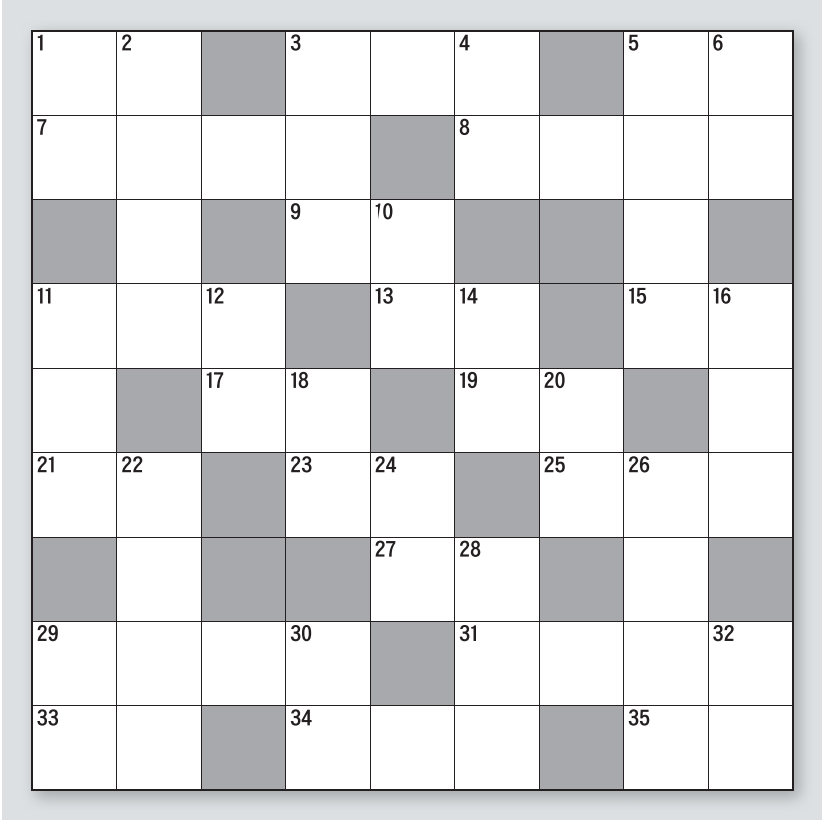
Eric is talking to his high school classmate Dan.

(에릭이 같은 고등학교 반 친구 댄과 이야기한다.)

(앞으로의 미래를 얘기하느라 늦게까지 안 잤어.)

* (one) is bushed: 지치다. 피곤하다.
“I'm bushed. I'm going to bed early tonight.”
(너무 피곤해. 오늘밤엔 일찍 잘 거야.)
*put in (hours): (일정한 시간 동안) 일하다.
“She put in three hours cleaning the house.”
(3시간동안 집안 청소를 했어.)

날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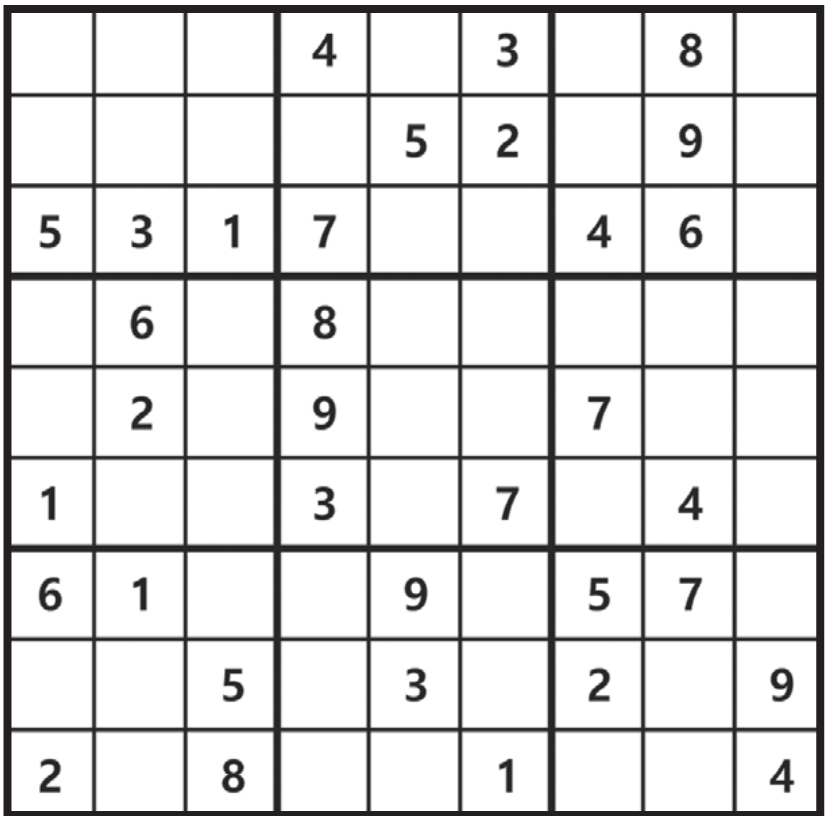
가로열쇠

(1) 일정한 경로를 한 바퀴 돌. 세계 ~ 여행이 나의 꿈이다 (3) 어린아이에게 등에 업하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 (5) 지위가 높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가 뵈. 황제께 ~을 청하다 (7) 계곡 따위의 사이를 건너다닐 수 있도록 밧줄 따위를 엮어서 양쪽에 매어 놓은 다리. 전국에 없는 곳이 없어 196개가 있다고 하죠 (8) 깊고 깊은 산천. ~의 백도라지 (9) 물체의 표면에서 반짝거리는 빛. 그는 부드러운 천으로 복 구두를 문질러 ~을 낸다 (11) 밟으면 꿈틀하죠 (13) 종이로 만든 신주. 현고학 생부군신위 등을 쓰죠 (15) 손발처럼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 (17) 담요 (19) 늦쇠로 만든 밧그릇 (21) 남과 이야기할 때, 자기의 아내를 이르는 말 (23) 원수를 갚음 (25) 방 안 벽의 아랫도리에 바르는 종이. 장판과 벽지 사이에 ~를 대었다 (27) 여자가 잘 따르는 복 (29)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언제나 푸름. □□상□ (31)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음. □치□□ (33) 부동산 거래에서 손님이 부동산 소개업자에게 주는 돈 (34) 봄과 가을에 입는 옷 (35) 차량을 넣어 두는 곳

세로열쇠

(1) 해가 뜬 (2) 열매 따위가 많이 달려 있는 모양. 앞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감이 ~ 열렸다 (3) 어른에게 귀여움을 받으려고 예쁜 태도를 보이는 일 (4) 곡식의 낱알을 떨어서 거두는 일. 누나는 풋보리 ~을 하러 밭으로 나갔다 (5) 산을 뒤에 두고 물을 앞에 대하고 있는 땅의 형세. ~ 지형은 예로부터 명당터로 손꼽혔다. □□임□ (6) 재산 가운데 가장 값나가는 물건. 음식 가운데 가장 맛있는 음식 (10) 집을 짓기 위해 마련된 땅 (11) 오줌에서 나는 것과 같은 냄새 (12) 어머니의 자매 (14) 네모반듯한 모양으로 만든 배. 노아의 ~ (16) 부녀자들이 예복을 입을 때에 머리에 얹는 관 (18) 배를 땅에 대고 김 (20) 말, 소, 양 따위 짐승의 발끝에 있는 두껍고 단단한 발톱 (22) 아늑하고 정도로 인색한 사람 (24) 얼굴에 난 털 (26) 목적지에 달기 전에 차에서 내림 (28) 복이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의 운이라는 말 (29) 온갖 복. ~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30) 새싹이 파랗게 돌아나는 봄철.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시절. ~은 아름다워라 (32) 값싸고 휴대하기 편하게 만든 출판물

스도쿠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유효기간 3자리 EXP. DATE: / month year CVS: ☐
	카드 번호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뉴저지 한소망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자격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신 분으로
PCUSA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목회 5년이상 경험 (부목사 포함) 있으신 분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하신 분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본교단 P.I.F. 1부 (서식은 www.pcusa.org에서 다운로드)
본인, 사모 및 가족 소개서 1부 (목회 경력, 가족사진 등 포함)
목회비전 1부 (신앙간증문, 목회 동기 및 목회 철학, 교회사역 등 포함)
학위 증명서 (학부, 신학대학원) 및 목사안수 증명서 각 1부
추천서 2부 (각 추천인의 연락처 기재요망)
최근 1년 내 설교영상 (2편, 링크)

제출처

Hope Presbyterian Church (Attn. 청빙위원회)
이메일: hopepnc2025@gmail.com

접수마감

2025년 6월30일(월) 23시 59분 까지 도착분에 한함

참고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서류 심사 후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6년 기간 위임 후 재청빙

문의

이메일: hopepnc2025@gmail.com
(Attn. 청빙위원장)

한소망교회 청빙위원회

기타 지역

매매

스시-대형마켓내

(라스베가스 지역)
가격 \$10만
일주일 매상: \$9,500-\$1만
부부 운영 적합
(213)858-6332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레이저로 받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레이저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 펠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헛드신분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권설팅 (213)357-1010, (213)820-3912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에서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히노 고메즈 씨.**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히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배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ADT 시큐리티 알람서비스

**“강도, 도둑도 방지,
예방이 최고입니다.”**
소중한 집, 자산, 가족의 안전 보호는 ADT가 최고입니다.

**남가주 최대
공인딜러**

한인담당 매니저 제임스 정을 찾아주세요.
Dir. (714)873-8724 무료상담 “Authorized Dealer”

**무료 초인종 카메라
전화기로
연결 가능**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립니다**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
케어**

**교통
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바스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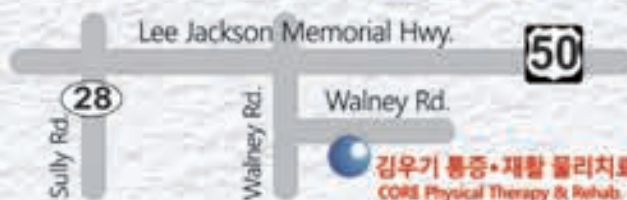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